

출판N

2022.05. Vol.32

Now
Next
News
Network

책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매체로
다양한 목소리와 연대, 연결을 지향하는
출판 전문 매거진

nzine.kpipa.or.kr

커버스토리 : 문해력의 중요성과 전망

초중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현황과 과제
디지털 시대, 왜 문해력이 핵심인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시대의 책 읽기

정책증인

[KPIPA 출판산업 동향] 2021년 하반기 KPIPA
발행 통계 및 심층 분석
지역출판이라는 바다 위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의 뜻을 올린다

출판가 핫&쿨

고(故) 이어령 장관이 한국 출판계에 남긴 것
한국 그림책의 국제화 노정(路程)

인사이드

대형 출판사를 그만두고 1인 출판사를 시작하다
그림책 출판사 '윤에디션'의 낯설고 새롭음
2022년 5월, 책의 도시 전주에서 '그림책'을
만나다

해외리포트

우리 그림책, 남미를 만나다
서로의 안녕을 확인한 2022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
[글로벌 출판 동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대하는 독일 출판계의 자세



<출판N> 웹진
<http://nzine.kpipa.or.kr>



+ 커버스토리	문해력의 중요성과 전망 초중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현황과 과제 1 · 계보경(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글로벌정책연구부장) 디지털 시대, 왜 문해력이 핵심인가 5 · 구본권(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9 · 정현선(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디지털 시대의 책 읽기 15 · 전병근(북클럽 오리진 지식큐레이터)
+ 정책zoom	[KPIPA 출판산업 동향] 2021년 하반기 KPIPA 발행 통계 및 심층 분석 21 · 출판정책연구팀,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지역출판이라는 바다 위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의 뜻을 올린다 30 · 장현정(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대표)
+ 출판가 핫&쿨	고(故) 이어령 장관이 한국 출판계에 남긴 것 36 · 이호재(동아일보 기자) 한국 그림책의 국제화 노정(路程) 41 · 심향분(전 KBBY 회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인사이트	대형 출판사를 그만두고 1인 출판사를 시작하다 46 · 이승현(좋은습관연구소 대표) 그림책 출판사 '윤에디션'의 낮섬과 새로움 53 · 최덕규(그림책 작가, 윤에디션 제작부장) 5월, '책의 도시 전주'에서 '그림책'을 만나다 59 · 윤지현(전주시 책의도시정책과 사서)
+ 해외리포트	우리 그림책, 남미를 만나다 64 · 김지은(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서로의 안녕을 확인한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 71 · 오승현(출판사 글로연 대표) [글로벌 출판 동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대하는 독일 출판계의 자세 80 · 박소진(그래픽 디자이너, KPIPA 독일 수출 코디네이터)

발행인 김준희 편집인 박찬수 편집위원 김세나, 김흥기, 류영호, 백창민 발행일 2022년 5월 12일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대표전화 063-219-2724 E-mail nzine@kpipa.or.kr 홈페이지 www.kpipa.or.kr

기획/편집 출판정책연구팀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필자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해력의 중요성과 전망]

초중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현황과 과제

- 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결과

계보경(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글로벌정책연구부장)

2022. 5.

디지털은 이제 더 이상 삶과 분리된 용어가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아날로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이 융합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소위 읽고, 쓰고, 셈하기로 일컬어지는 '3R(Reading, wRiting, aRithmetic)'을 넘어 제3의 리터러시를 요구받고 있다.

리터러시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코드를 반영해 규정되는 리터러시의 속성을 반영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능력'이라는 초기 협의의 개념에서 출발해 '디지털 정보나 미디어에 접근(Access)하고 분석(Analyze)하여 평가(Evaluate)하고 새롭게 창조(Create)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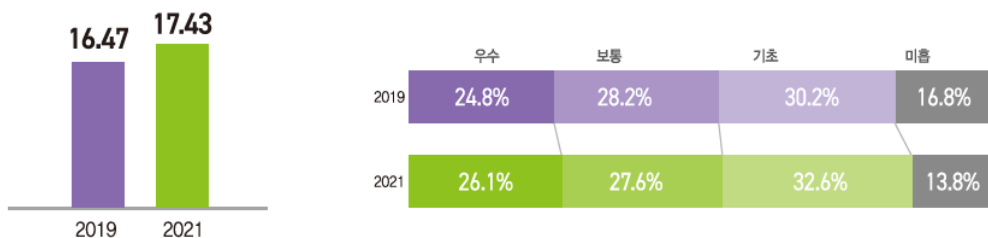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교육의 방향은 이러한 기본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서로 공존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리터러시' 함양으로 보다 폭넓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주적인 삶을 위한 기본소양으로, 윤리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해·활용하며, 정보의 탐색·관리·창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미래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keris.or.kr)에서는 국가수준에서 해마다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으로, 2021년도 조사에서는 전국 초·중학생을 시도별, 지역규모별, 성별 등을 고려해 약 1% 총화표집한 2만 2천여 명(초등학생 9,062명, 중학생 13,054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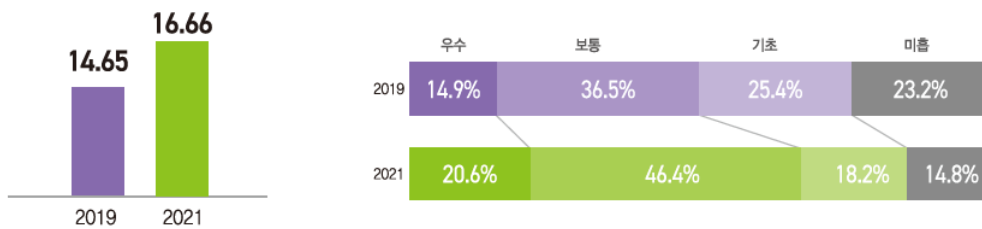
주요 측정 영역은 ① 정보의 탐색, ② 정보의 분석 및 평가, ③ 정보의 조직 및 창출, ④ 정보의 활용 및 관리, ⑤ 정보의 소통, ⑥ 추상화, ⑦ 자동화의 7개 영역으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학기부터 원격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교육 환경과 방식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났다. 이에 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디지털 리터러시 평균 점수(동등화 점수)는 초등학생 17.43점, 중학생 16.66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평균 점수(초등학생 16.47점, 중학생 14.65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취 수준 분포의 비교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019년에 비해 2021년 검사에서 우수 수준인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미흡 수준인 비율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검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상의 폭은 중학교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 남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도서벽지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018년 이후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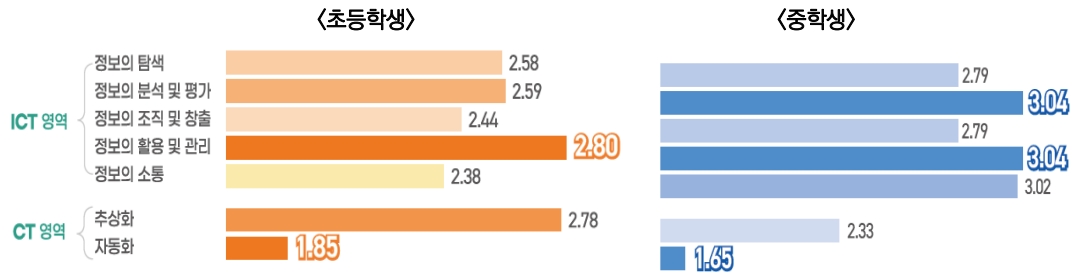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동등화 점수 및 성취 수준 비교



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동등화 점수 및 성취 수준 비교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정보의 활용과 관리'와 '추상화'의 평균이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동화'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타 요소에 비해 '정보의 분석 및 평가'와 '정보와 소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추상화'와 '자동화' 요소의 점수가 다른 요소에 비해 낮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자동화' 요소의 점수가 다른 요소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과 이러한 경향이 이전 연도의 검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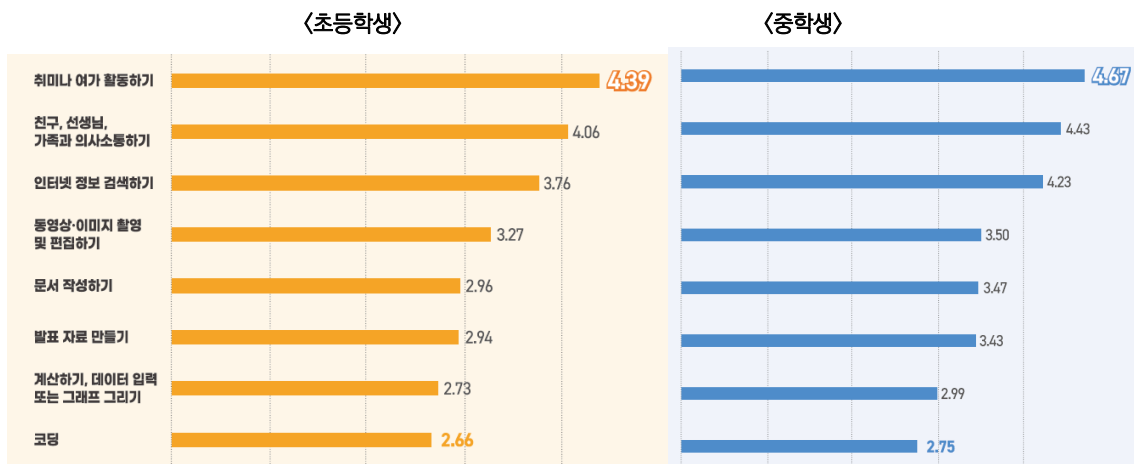
도 동일하게 나타난 점은 학생들이 ICT 기기와 컴퓨팅적 사고를 적용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 및 절차를 자동화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 요소별 점수 비교

아울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는 대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 학생이 다른 지역규모의 학생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이전 연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성별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차이에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자동화'를 제외한 모든 하위 요소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자동화' 요소에 있어서는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비교 연구인 ICILS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그 원인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영역별 효능감에 대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22.90점→26.78점), 계산하기, 데이터 입력 또는 그래프 그리기, 코딩 등의 효능감 수준은 취미나 여가활동, 의사소통 등에 비해 상당 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목적의 컴퓨터 활용 경험이나 태도 등의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2018)의 결과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분석, 창작, 컴퓨팅 사고력 등과 같은 영역의 학생 디지털 역량 개발에 정책적 지원이 보다 시급함을 보여준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영역별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 수준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와 가정의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연결 여부, 독립 공간 확보 여부 등)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의 차이가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 수준도 담당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디지털 접근성의 확보와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한 기기 활용에 대한 효능감 향상, 교원의 디지털 역량 향상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으며,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과 함께 일상의 기술, 생활을 위한 역량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미래사회의 필요 역량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역량이 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고른 향상을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 역량으로서 디지털 접근성 강화, 커리큘럼 개선, 교원과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촘촘한 정책적 지원과 공동체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계보경, 이현숙, 한나라, 김혜숙(2021). 2021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계보경(2017). 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동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 2021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이행현황 보고서.



계보경(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글로벌정책연구부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글로벌정책연구부장을 맡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HRD 전공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교육 정책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kye@keris.or.kr

[문해력의 중요성과 전망]
디지털 시대, 왜 문해력이 핵심인가

구본권(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2022. 5.

문해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3월 교육방송(EBS)이 방영한 “당신의 문해력” 다큐멘터리는 우리 사회의 문해력에 관한 생생한 현장보고서였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바일에서 쉼 없이 읽고 쓰는 활동을 일상화하도록 했지만, 거의 모든 세대는 긴 글 읽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대한 한 줄 평은 세대별 어휘 격차와 문해력 문제를 널리 알린 계기였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도 처연한 계급 우화”라는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문장은 내용과 별개로 어휘의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왜 ‘명징’, ‘직조’처럼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느냐는 일부의 반발이었다. 2020년 광복절 즈음엔 대체공휴일로 ‘사흘 연휴’가 생겼다는 보도에 “왜 3일 연휴인데 사(4)흘이라고 보도하느냐”는 댓글과 함께 ‘사흘’이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고지식한 사람’은 지식이 높은 사람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의 선무당을 서 있는 무당으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교사들의 말이다. 말과 글을 다루는 게 직업인 기자들도 단어의 뜻을 몰라, 황당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 11월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무운을 빈다”고 말하자, ‘운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석한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5월 발표한 “피사(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서 한국의 만 15살 학생(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사기성 전자우편(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역량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싱 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덴마크·캐나다·일본·네덜란드·영국 학생들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한국은 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헝가리 등과 함께 최하위 집단으로 분류됐다.

이와 달리, 국내 초·중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최근 공개됐다. 2022년 3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수준 측정 연구' 결과에서는 중학생 중 '우수' 학생의 비율이 2019년 검사 때의 14.9%보다 높아지고, '보통' 비율도 36.5%에서 46.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이 늘면서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한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2년 전 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좋아졌다고 낙관하기엔 최근 언론과 교육계에서 보고되는 문해력 실태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

국내 출판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관련 서적의 잇단 출간과 인기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매리언 울프의 『다시, 책으로』(어크로스, 2019), 언어학자 김성우와 사회학자 엄기호가 공동집필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따비, 2020), 미국 대학에서 10년 넘게 문해 교육을 연구해온 조병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펴낸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쌤앤파커스, 2021)가 대표적 도서다. 이들 서적은 모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해력의 문제를 모바일과 동영상 콘텐츠 소비문화가 특징인 디지털과 관련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터러시 문제의 최전선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은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국민의 정보화 욕구가 높은 '디지털 강국'이자 문맹률이 최저 수준인 높은 교육열의 국가 한국에서 왜 문해력이 문제되는 것일까. 우선 최근 문해력이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은 문해력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디지털 기술과 떼어서 고려될 수 없다.

15세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술 덕분에 인류는 지식의 시대를 만나기 시작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오랫동안 소수 특권층의 영역이었다.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를 배운 사람들만 리터러시 능력이 있었다. 라틴어와 한자는 말하는 모국어 가 아니어서, 적어도 10~20년은 배워야 능통할 수 있는 문자 언어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자유로운 특권층만이 문해력을 지닐 수 있던 시절이었다. 인쇄기술의 보급은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불러왔고 근대 시민사회와 산업사회를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세계에 또 한 번의 혁명을 가져왔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누구나 손안에서 거의 공짜로 언제나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선물했다. 정보사회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예고한 대로 지식과 정보가 가장 큰 권력이 되는 사회다. 문맹률은 제로에 가깝고, 누구나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하고 편리한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쉽 없이 읽고 쓰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보 이용과 생산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오늘날 문해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일까?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 문제를 얘기하려면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이 전통적 문해력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짚어봐야 한다. 리터러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고대엔 '학식 있는 사람', 중세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근대국가 시기엔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이었다.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해왔는데, 책의 그림과 글자보다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동영상을 먼저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읽고 쓰기가 그 이전과 다른 점은 매우 쉽고 편리하며 순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과거에 읽고 쓰는 행위는 교육받은 소수의 일이었다는 점과 함께 상당한 시간과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모든 게 달라졌다. 읽고 쓰기는 모바일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됐지만 과거처럼 시간과 속고를 동반하지 않는 행위가 됐다. 정보 이용의 대부분도 동영상 시청 플랫폼의 인기에서 드러나듯, 책임기에 비하면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수동적 정보 수용 과정에서 정보 이용자는 인지를 최소한으로 작동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다. 동영상 시청은 글자를 읽고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앞서 맥락을 기억하는 등의 노력 없이도 정보를 실감 나게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인식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다. 지성과 진실은 외부의 정보를 갖고 자기 안에서 구성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안다는 것을 단지 정보를 아는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전문가와 지식에 대한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전문가의 식견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그 지식과 노하우를 인터넷 검색을 30초만 하면 누구든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값싼 공유물로 인식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나도 너만큼 알아’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전문가와 강적들』(오르마, 2017)의 저자 톰 니콜스는 이에 대해 “지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지적 수준이 동등하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확산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한다.

누구나 손쉽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검색을 통한 정보 이용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가 대표적이다. 인터넷은 배경과 맥락을 찾아보기도 편리하지만, 적극적 정보 이용은 실제로 많지 않다.

이는 리터러시에 대한 유엔 교육사회문화기구(UNESCO)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유네스코는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종이에 쓰인 글의 내용을 읽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사회적 능력을 말한다.

문해력이 디지털 세상에서 더 중요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중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말해주듯 갈수록 희소해지는 능력인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더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정보화 세상에서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연결성은 높아진다. 정보를 연결하고 선택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딥페이크와 메타버스처럼 가상과 현실의 뒤섞임이 불가피한 미래다. 단순한 정보 접근과 수용으로는 점점 복잡해질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에게 손쉬운 정보 접근과 이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이 거꾸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리터러시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디지털 환경에서 집중해서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르쳐야 한다.

책에서 만나는 정보는 대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맥락을 함께 알게 되는 선형적 구조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적이고 고립적이다. 검색을 통해 만나는 정보는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다. ‘가장 인기 높은 정보’이거나 ‘만족도 높은 정보’가 날개로 제공되고 분절적이다.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지만 맥락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건너뛰기도 쉬워졌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는 많은 것을 찾아보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 구성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체적 정보 구성력이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력의 핵심이다. 지금까지의 지식체계와 직업을 대비해 이뤄져온 기존의 교육 방식과 문해력 접근법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업

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세대 간, 계층 간 문해력 충돌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해력이 중요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왜곡정보의 범람과 영향력 확대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세력은 디지털 정보 구조와 새로운 문해력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 이를 악용한다. 리터러시 격차를 조작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편향적이고 분절적인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이용자들을 주로 공략하고 있다. 허위 왜곡정보의 문제가 특정 국가나 계층을 넘어 범사회적이고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되는 배경이다. 새로운 문해력을 디지털 시대에 만인에게 필수적인 시민성 차원으로 재교육하지 않으면 사회와 개인은 점점 더 많은 허위 왜곡정보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기술은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가장 쉽게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인 이미지와 음성을 더 많이 보고 듣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는 갈수록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끄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은 몇백 년 전이야 보급된 정보 취득 방법이다. 추상적 기호를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일은 매우 비자연적 경로다.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의 작가 조병영은 요즘 사람들이 정보 홍수 아닌 정보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다. 그는 “디지털 이전에 필요한 정보는 생존과 성공에 중요한 정보였다. 디지털에서는 생존과 관련 없는 많은 정보가 넘쳐난다. 지금은 즐거움과 웰빙을 위한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정보 결핍이다. 그런데 대부분 자각하지 못한다. 자신에게 넘쳐나게 들어오는 정보의 유해성, 유익성을 판별하기 어렵다.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고 말한다.

매리언 울프를 비롯한 리터러시 전문가들은 아날로그의 선형적인 정보와 디지털의 비선형적인 정보 중 어느 것이 우위라고 단언하지 않는다. 오른손, 왼손 모두를 사용하는 양손잡이처럼 두 능력 모두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사용하는 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종합적인 문해력이라고 알려준다.



구본권(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정보기술 전문가자로 오랫동안 일하며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인지 구조와 사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해왔다. 『로봇시대, 인간의 일』, 『공부의 미래』,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등을 저술했다.

starry9@hani.co.kr

[문해력의 중요성과 전망]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현선(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2022. 5.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 중 하나로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와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 기준(안)이 제시되었다(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2021.11.24. 발표).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관련 교과 내용의 재구조화 및 교과 간 융합 교육의 강화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 비판적 사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민의 참여와 실천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문화 다양성,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지역 및 국가 공동체 참여와 실천 등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에 포함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의 결과로 학습자들이 기르게 되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역량을 뜻한다(Buckingham, 2004).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시민의 알 권리, 민주적 여론 형성,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팩트 체크 등 정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디어는 도구적·기능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통로이자 중요한 놀이와 문화의 양식으로 존재한다(전경란, 2015).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의 증대로 인한 리터러시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디어 문화 현상 내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정현선·김아미·박유신 외, 2016).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르기 위한 목표를 고려하되, 각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미디어 정보, 이야기의 이해와 생산 및 소통의 윤리와 책임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시안은 개발 중에 있고 공식적인 교육부의 발표가 아니라 연구진의 의견이므로, 시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 연구 발표회에서 제공된 자료집들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대체적인 방향과 윤곽은 살펴볼 수 있다.¹⁾ 아래에서는 국어과, 사회과, 도

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자료집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반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 현장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요구되는 향후 과제들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 과목 영역이 생기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의사소통(융합 선택)’ 과목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독립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점도 중요한 변화이나, 이 글에서는 보다 보편적인 교육과정인 공통과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반영된 미디어 리터러시

국어과 교육과정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역량으로 모든 교과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의 강화에 대한 요구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요구와 결합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위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목표 중 하나로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국어 자료, 작품, 복합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군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공통과정의 영역에 ‘매체’ 영역이 신설되어 학습 내용 및 성취기준이 마련되었다.

‘매체’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는 우선 ‘핵심 아이디어’로 “매체는 소통을 매개하는 각종 수단으로 당대 사회의 소통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매체 이용자는 매체 텍스트의 주체적인 수용과 생산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관여한다.”, “바람직한 소통 공동체는 매체 및 매체 소통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형성된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어과에서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초점이 소통의 매개 수단으로서 매체에 대한 이해, 매체 텍스트의 의미 수용과 생산 능력, 바람직한 소통 문화의 함양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실제 학교 수업과 과제로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자료 조사와 제작을 요구하면서도,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자의 암묵적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였던 것을 명시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의 ‘매체’ 영역에 제시된 성취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초등학교 1~2학년군에는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텍스트를 만든다.”를 포함한 3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들은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되는 초등통합교과의 교육과정 개정 시안 중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탐색하여 상상한 것을 창의적으로 구현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과 초등학교 3~4학년군에는 “인터넷에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선택한다.”,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단한 발표용 텍스트를 설계하고 제작한다.”를 포함한 3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과 초등학교 3~4학년군에 “민주주의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하고, 지

1) 교과별 개정 시안 연구 발표회 자료집들은 ‘에듀넷 티클리어’ 홈페이지(<https://www.edunet.net/>)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본다.”, “최근 사회 변화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를 분석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국어과 초등학교 3~4학년군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은 사회과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뒷받침하여 내실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다. 현재 교육과정 시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교과 간 연계 요소는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는 소통을 매개하는 각종 수단으로 당대 사회의 소통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매체 이용자는 매체 텍스트의 주제적인 수용과 생산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관여한다. • 바람직한 소통 공동체는 매체 및 매체 소통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형성된다.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범주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매체 소통의 맥락과 매체 유형	매체 소통 맥락	• 기기와 프로그램	• 상황 맥락(목적, 주제) • 소통 도구(기기와 프로그램)	• 상황 맥락(생산자, 수용자) • 양식	• 사회문화적 맥락(소통 공동체) • 소통 공간
	매체 소통의 목적과 매체 유형	• 일상생활의 매체 텍스트	• 공공기관의 인터넷 텍스트	• 정보 검색 도구 • 뉴스 및 정보 매체의 텍스트	•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 광고
매체 소통의 과정과 전략	접근과 선택	• 기기와 프로그램 사용하기	• 비선형적 텍스트 접근하기 • 다양한 자료 탐색·선택하기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체 텍스트 접근하기 • 목적을 고려하여 매체 텍스트 선택하기	• 다양한 유형, 관점, 소통 공간의 매체 텍스트 탐색·선택하기
	해석과 평가	• 매체 텍스트의 의미 파악하기	• 주제와 의도 파악하기	• 매체 텍스트의 타당성과 공정성 평가하기	• 매체 텍스트의 재현 방식 이해하기
	설계와 제작	• 말, 글,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기	• 발표용 텍스트 설계·제작하기	•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하기 • 수용자의 반응 고려하기	• 영상 매체 텍스트 설계·제작하기 • 상호작용적 매체 텍스트 설계·제작하기
	공유	• 매체를 이용해 대화하기	•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을 고려하여 공유하기	• 참여를 위해 공유하기	•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하기
	점검과 조정하기	• 매체 이용 시간 및 목적 점검하기	• 매체 소통의 안전과 보안 점검하기	• 매체 이용과 소통 문화에 대해 성찰하기	• 수용자 반응을 고려하여 매체 텍스트 점검하기
매체 이용자와 소통 태도	매체 이용자의 정체성	• 즐거운 매체 이용자	• 슬기로운 매체 이용자	• 올바른 매체 이용자	• 윤리적 창의적 매체 이용자
	매체 소통 태도	• 매체 소통에 대한 관심	• 안전과 보안	• 디지털 시민성(소통 윤리)	• 디지털 시민성(권리와 책임)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시안에 제시된 공통과정 '매체' 영역

(출처: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연구자료 ORM 2022-51: 50)

초등학교 5~6학년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정보 검색 도구의 특징을 이해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매체 텍스트를 찾는다.”, “뉴스 및 각종 정보 매체 텍스트에 담긴 관점과 편향을 파악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적합한 양식과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사람에 따라 매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댓글 등 매체 이용과 소통 문화에 대해 성찰하며 토론한다.”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과정'에 대한 '지식·이해' 내용 요소에는 '미디어의 역할'과 '미디어의 분석 및 평가(미디어 리터러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군 도덕과 교육과정의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규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찾는 활동을 통해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한다.'가 제시되어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목적에 맞는 매체 텍스트를 찾고, 매체 텍스트에

담긴 관점과 편향을 파악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등의 능력을 기르는 국어과 학습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이해하는 사회과 학습,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탐구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도덕과 학습의 연계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교과별로 살펴보면,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가 소통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한다.”, “수용자의 참여를 고려하여 상호작용적 매체 텍스트의 제작을 계획한다.”와 같이 보다 심화된 수준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도덕과에는 “가상공간과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사회과에는 ‘다양한 문화의 이해’ 영역의 성취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미디어 유형들을 탐색하고,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문화 사례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여러 교과에 반영되어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매체가 지닌 특성과 영향력을 소통 공간 내 생산자와 수용자 간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미디어 텍스트의 사회적 의미 이해와 평가 및 미디어 텍스트 제작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도덕과와 사회과에서는 교과목의 목표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공간의 도덕적 문제와 문화적 사례의 탐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교과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들이 학습자에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해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은 교육과정 개발 기간 동안 교과 간 연계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교과서 개발 지침과 평가 방법을 개별 교과목의 교육과정 문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영하는 모든 교과목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한데 모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침으로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맺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시안에 제시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목표, 내용, 성취기준들은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과 학습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의미 있는 내용들로서 교과별 특성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에 충실한 내용들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목표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반영되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법이나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미디어가 활용되던 기존의 방식과 분명히 구분되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이에 기반한 미디어 활용 능력의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매우 근본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등 주요 교과목의 특성과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과 내에서, 그리고 교과 간 연계를 통해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아야 하는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량 및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 간 연계 교수·학습 방법 및 교과 연계에 의한 평가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 우수 사례를 보급하는 일은 남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 및 향후 후속 과제이다.

사실 기존의 교육과정에도 뉴스, 광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웹사이트 등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와 소통에 대한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초점이 미디어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데 있기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의 학습 차원이나 매체를 활용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도 인터넷 지도를 찾아보거나, 지역 특성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며,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등의 미디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교육과정의 목표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언급이 부재함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ICT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통신 윤리교육 그리고 미디어나 대중문화를 활용해 학습의 흥미를 끌어내는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의 혼란은 교육과정 문서에서 반드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와 ‘매체’가 혼용되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초소양’,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 등의 용어가 교과별로 달리 쓰이고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 및 정책 용례 측면에서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용되고,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교육부의 총론 주요 사항에서는 ‘디지털 소양’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용되었으며,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정책 용어로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이 사용되었다(정현선·장은주, 2021).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매체 이해력’으로 순화어를 제시한 바 있다. 각각의 용어가 각기 장점이 있으나, 학문적 개념어와 국가 정책 및 법령 용어를 존중하여,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전체 교육과정의 용어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석학 가운데 한 사람인 미국의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 교수는 “미디어 교육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한겨레 2020.10.26.).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은 온라인 혐오와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의 위험이 상존하는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학교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교사들을 ‘강제 이주’하게 만드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었으나,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과 출처의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며 시민적 가치와 태도의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2021년 9월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의무화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교과별 교육과정에 담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정책을 교육과정 정책의 후속 과제로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전문가와 인프라의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경기, 대구, 충북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미디어

어교육센터 및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 포털인 '미리네(<http://www.miline.or.kr/>)'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 온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학교 미디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사 양성 단계에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교대 교육과정 및 사대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필수 과목을 도입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현장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고 체계적인 직무 연수를 제공하는 일 역시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2021.11.24.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연구자료 ORM 2022-51. 2022.4.22.
- Buckingham, D.(2004). Media Education: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John Wiley & Sons. 기선정·김아미 옮김. 미디어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제이앤북.
- 전경란(2015).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현선·김아미·박유신·장은주·길호현·노자연·김혜진·이지은(2016). 초·중등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단원 개발 연구. 교육부 2016-6.
- 정현선·장은주(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미디어 교육 안하고 온라인 교육 시행은 범죄행위죠". 한겨레 2020.10.26. <https://www.hani.co.kr/arti/PR/INT/967315.html>



정현선(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영국 UCL Institute of Education에서 미디어 교육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및 교육전문대학원 디지털미디어교육 전공과정의 교수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해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 등이 있고, 『Learning to Live with Datafication: Educational Case Studies and Initiatives from Across the World』, 『Learning Beyond the School: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Schooled Society』 등의 공저가 있다.

hyeonseon@ginue.ac.kr

twitter: @jeonghs

[문해력의 중요성과 전망] 디지털 시대의 책 읽기

전병근(북클럽 오리진 지식큐레이터)

2022. 5.

종이책의 '신화'

지금 독서계에는 두 가지 물신주의가 있다. 종이책 물신주의와 디지털 물신주의다. 전자는 오랜 것이고, 후자는 최근에 등장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앞의 것부터 보자. 독서의 퇴조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말이 '디지털 때문에 사람들이 책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도 찬찬히 짚어볼 문제이지만, 이런 푸념에만 머물면 독서계의 위기감은 헤어날 길이 없게 된다. 이미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된 지 오래다. 독서를 종이책에 묶어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는 디지털 환경 속의 독서 수요 대응에는 그만큼 더 늦어지고, 아직 실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읽기의 수단이 종이책에 국한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지금 기술 상황에서는 여전히 종이책만의 고유한 특성이 엄연하다.) 종이책 역시 수백 년 전 인쇄혁명과 함께 서서히 진화하고 확산되어 온 기술 매체이고, 독서도 그런 책과 더불어 갈고 닦아온 인류의 기술이다. 과거 소크라테스는 문자라는 도구가 인간의 기억과 사고력을 약화시킬까 걱정했다고도 한다. 책이라는 물건 자체가 어떤 영구불변한 가치의 유일한 담지자일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 당대 기술 사정과 그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종이책으로 읽어야 '진정한' 독서가 가능하다는 말도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특정 세대의 관성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종이책과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책은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 뉴스나 보고서, 논문 같은 일반적인 읽기물의 경우 종이와 디지털 사이에서 고민하던 상황이 이제는 빠르게 디지털 적응이라는 단일 선택지로 옮겨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하철이나 사무실 풍경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급증한 비대면 수업과 미팅이 익숙해지면서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과거 책에서 찾던 정보와 즐거움을 상당 부분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기기로 해결한다. 디지털 기기는 그런 수요에 맞춰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다. 글로 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와 동영상 매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조합의 콘텐츠를 귀나 눈, 혹은 둘다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도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오디오북으로 즐겨 듣는다. 성우들의 구성진 사투리가 책으로 읽을 때보다 한층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특히 동영상의 위력이 독서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유튜브 동영상의 시청 시간은 매일 10억 시간이 넘는다. 많은 사람이 이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로 직행한다. 지금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는 디지털 매체를 읽기의 중요한 동반자로 삼는 한편, 일상의 기본 설정이 되다시피 한 디지털 환경을 독서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종이책만을 독서와 등식화하고 있다가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점점 자리를 키워가는 디지털 기기의 잠재력을 다른 것에 다 내주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매체 다변화에 조응하는 노력을 독서출판계라고 피할 수는 없다.

디지털 물신주의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함정인 디지털 물신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사실 종이책 물신주의보다도 주의해야 할 것이 더 많다. 그만큼 더 강력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시가 중학생 1학년생 전원에게 태블릿을 나눠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디지털 시대 경쟁력을 위해서라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일이다. 운전면허 제도는 없었다. 차량등록 제도만 있었다. 차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운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 것은 한참 후였다. 차량등록보다 중요한 것이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자격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이다. 지금 태블릿을 지급한 교육 당국은 어떨까. 적지 않은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최신 기기만 쥐어주면 만사가 해결될 거라고 본 걸까.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은 충분히 따져봤을까.

관련해서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미국의 언어학자 나오미 S. 배런이 쓴 『지금 우리가 읽는 방식(How We Read Now)』(2021)이다. 저자는 디지털 기기의 확산이 정말 독서를 위협하는지 따져보기 위해 지난 20년 이상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책에 따르면 뜻밖에도 독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학교다. 대학 교육에서는 물론이고 초·중등 교육 과정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교수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디지털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과제물로도 내준다. 교실에서는 동영상 자료가 점차 읽기 과제물을 대신하고 있다. 학생이나 직장인도 무겁고 값비싼 종이책 교재나 참고서 대신 디지털을 택한다. 연구자들도 논문 작성과 발표, 공유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비중이 커졌다. 교과서 출판업계 사람들은 초·중·고 과정의 종이책은 조만간 관심에서 밀려날 거라는 말까지 한다. 이처럼 학교들이 디지털로 몰려가는 데는 재정적인 원인도 크다. 게다가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디지털 혁명’에서 뒤지지 않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다른가.

문제는 대다수 디지털 매체가 종이책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더 얇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매체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mindset)인데, 학생들은(아마 일반 성인들도) 디지털 매체를 대할 때는 은연중에 오락물처럼 대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피상화(shallowing)’라고 부른다. 반면 학생들은 종이책을 읽을 때는 더 힘들게 천천히 읽어야 한다고 느

킨다. 그 결과 학생들은 종이책이 주는 추가 부담을 꺼리게 된다.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디지털 매체에 맞춰 발달된 학생들의 마음가짐은 종이책 읽기에도 영향을 준다. 전자책을 먼저 접한 아이들은 종이책을 꺼리게 되고, 심지어 종이책을 읽을 때조차 디지털 방식의 마음가짐을 취하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매체를 불문한 얕은 읽기의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요즘은 종이책을 만드는 관계자들도 점점 즐거움의 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경쟁력을 높이려 애쓰는 것을 본다. 책의 본래 강점이자 목적인 읽기와 생각의 깊이가 알아지는 피상화의 악순환이다.

디지털 책은 잠재력이 크다. 가격이 비교적 싸고, 대단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검색에도 안성맞춤이다. 오디오북은 휴대하기 좋고 러닝머신 위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특히 매력적인 낭독자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은 감정이입의 효과에서는 텍스트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물론 종이책을 꺼리는 아이에게 오디오북이나 동영상은 독서의 세계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그만큼 주의와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훨씬 어려운 문제이고 대단히 미진한 부분이다.

왜 읽는가

양극단의 독서 물신주의를 피하기 위해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은 독서의 의의와 목적이다. 사람들은 흔히 독서의 목적을 정보와 즐거움에 둔다. 단지 그런 것이라면 종이책은 다른 경쟁 매체에 비해 승산이 높지 않아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결합은 정보와 오락물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충족시킨다. 반면, 독서의 본령은 생각의 깊이(다른 말로는 복잡성)에 있다. 카프카가 적절히 비유했듯이 좋은 책은 얼어붙은 마음의 바다를 깨는 도끼다. 또한 일찍이 프루스트가 얘기한 대로, 자기 정신을 가동하면서 동시에 다른 정신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만들어 간다. 인문학이, 인간 교육이 독서를 근간으로 삼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것을 다른 매체물로는 할 수 없는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감각을 거쳐 뇌의 사고로 연결되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미건조한 활자를 통해 다른 감각은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게 만드는 매체로는 책만 한 것이 없다. 책은 수백 년 세월을 통해 그와 같은 개인의 '고독한 대화'에 최적화되어온 물건이다. 읽기 전용의 전자책이 그렇게도 종이책을 닮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반면 현재 우리가 쓰는 디지털 기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은 읽기가 아닌 다목적의 시청각 기기이고 깊이가 아닌 얕은 정보와 오락물 그리고 광고의 접속에 최적화되어 있다. 디지털의 비극은 그것이 인간보다 이윤에 봉사하는 기술로 급격히 확장돼 왔다는 사실이다.) 독서는 우리의 정신이 깊은 생각에 이르기 위한 오랜 인간적인 기술이자 구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읽기 또한 문화적 발명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읽는 뇌'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후성적(後成的) 기반 능력 중 하나이다. 나아가 인류 특유의 진화적 산물인 복잡한 사고 능력을 있고 키워가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다시, 책으로』의 저자 매리언 울프 또한 책의 독보적인 가치가 '깊이 읽기'에 있다고 봤다. 깊이 읽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유 과정에 속하는 유추와 추론, 공감, 비판, 분석, 상상의 능력을 기르고 유지하고 전수한다. 이러한 독서에서 핵심은 몰입, 즉 주의 집중과 그것에 필요한 시간의 의식적 지연이다. 만약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읽는 사람의 주의 배분과 질에 차이가 생

킨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점에 유의해서 그 매체를 살펴봐야 한다. 읽기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문해력이란 그저 글을 읽을 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신이 또 하나의 정신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해 가는 내면의 기술인 것이다.

깊이 읽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지지하는 삶의 방식인 민주주의와도 직결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공감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다. 민주주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도 많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자 발판인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소셜 미디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독서의 최대 적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 주의력을 빼앗아가는 소셜 미디어라고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통계를 근거로 말한다. 그것의 해악성과 중독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적절한 제도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일부는 추진되고 있다.

순간적인 정보 공유와 확산에 특화된 소셜 미디어에 의한 단문 중독은 사람들이 긴 글에 차분히 집중하고 자기 생각을 키워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진지한 작가와 독자들조차 점점 주의가 분산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이제는 책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이가 얕아지고 있음을 우려한다. 일찍이 니콜라스 카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깊이 읽기가 이제는 투쟁이 되었다”고 토론했다. 마셜 매클루언은 인간이 미디어를 만들지만 미디어는 다시 인간을 형성한다고 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대다수 디지털 기술은 독서에 필요한 속도와 깊이를 권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어느 시대보다 많은 양의 글을 읽는다고 하지만 속도에 쫓기면서 읽는 텍스트의 길이는 점점 줄어들거나 파편화하고 있다. 동영상마저 빨리 보기를 택하는 사람이 많다. 깊은 사고는 긴 형식의 글과 씨름하며 길러질 때가 많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기기들은 얕은 읽기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읽기의 다변화를 위하여

결국 과제는 독서에 따라다니는 두 가지 물신주의를 피해 책의 본래 목적을 온·오프라인 양쪽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역동적 균형이다. 지금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기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읽기를 위한 노력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디지털 기술을 독서와 연결한 연구를 보면, 적어도 지금의 디지털 읽기 관련 기기의 개발 상황에서는 어린 아이에게는 종이책을 토대로 읽기의 기술을 쌓고 그것을 토대로 디지털 읽기를 병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라는 조언이 지배적이다.

이는 매리언 울프가 말하는 ‘양손잡이 읽기(biliterate reading) 뇌’의 길이다.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가 상황에 따라 두 언어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듯이, 울프는 이중 문해 능력자가 되어, 목표에 맞춰 읽기 방식(과 읽기 플랫폼)을 바꿔가며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자고 주창한다. “궁극의 목표는 … 매체와 상관없이 깊이 읽기 기량에 시간과 주의를 할애하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양손잡이 뇌의 발달”이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로 읽을 때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텍스트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멀티태스킹 충동을 눌러야 한다. 지금의 지배적인 디지털 환경(특히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주의를 체계적으로 뺏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기기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만으로는 위험하다. 연령/학년/수준별로 적절한 읽기와 자율적 사고 체험으로의 단계적인 인도와 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단말기나 플랫폼 회사, 콘텐츠 회사들이 깊이 읽기에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미디어 기술은 기술자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될 중대한 공적 사안이 되었다. 공기관이나 학계 연구자들이 관련 기업과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글 콘텐츠에 맞는 디지털 읽기 도구(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면에 걸친)의 개발에도 획기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 정부가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독서는 무엇보다 습관 만들기 중요하다. 몸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이야기하듯이 마음의 양식인 책 읽기도 일상 속의 습관화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학생이나 성인의 독서량과 독서 습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책모임 활동이다. 이것은 독서의 습관 기르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독서는 고독한 활동이어서 고립되거나 위축되기 쉽다. 인간은 개인이기 전에 무리 동물이다. 무엇이든 함께 할 때 더 즐겁고 오래 갈 수 있다. 독서도 결국에는 여러 타자와의 대화이자 나눔이며, 그 자체가 즐거움이자 보상이 되어야 한다. 책읽기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라고 체험자들은 말한다. 정신의 교감이기 때문이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독서 모임이나 함께 읽기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성인이나 학생 모두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각급 학교는 물론 도서관이나 지자체, 동네서점이 따로 혹은 함께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 모임이야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를 수 있는 영역이다. 전통적인 책모임 말고도 요즘은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온라인 모임도 조금씩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해외에서는 요즘 개인의 온라인 독서 일기와 북클럽의 결성 및 운영을 결합해서 지원하는 포털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책모임을 이끌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진행에 필요한 인력과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기술은 사소해 보이지만 독서 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컨대, 종이책은 독서의 모든 것이 아니다. 디지털 또한 그 자체가 위협이거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기술은 인간의 지향을 증폭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다. 책도 기기도 읽기도 인간의 기술이다. 특정 기술을 물신화하거나 그 논리에 사로잡혀서는 곤란하다. 기술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우리의 대응도 그래야만 한다. 관건은 어떤 기술 조건에 처했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과 세상을 차분히 읽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그것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병근(북클럽 오리진 지식큐레이터)

디지털 시대 휴머니티의 운명에 관심이 많다. 책을 읽고 옮기고 쓰고 가끔 이야기도 한다.

journey.jeon@gmail.com

[@atmostbeautiful@twitter.com](https://twitter.com/atmostbeautiful)

[KPIPA 출판산업 동향]
2021년 하반기 KPIPA 발행 통계 및 심층 분석
- 재테크로 기울어진 출판시장

출판정책연구팀,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2022. 5.

〈2021년 하반기 발행 통계〉

출판정책연구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산업 생산, 판매, 소비 지수 등의 추이 변화를 주기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KPIPA 출판산업 동향」을 반기 단위로 발행하고 있다. 통계 자료의 적시성과 출판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출판 N」 웹진에서 「KPIPA 발행 통계」를 미리 공개하고자 한다. 발행 통계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각각 제공받은 도서 목록 중 국내 발행 도서를 대상으로 반기 통계용 도서 분류 기준(만화, 잡지 제외)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여 재분류하였다. 산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분석 원고도 함께 게재한다.

<2021년 하반기 출판산업 트렌드 심층 분석>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1) 출판 동향

가) 통계 분석

① KPIPA 발행 종수 개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의 입고 도서 목록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도서 목록을 취합하여 정리한 2021년 하반기 도서 발행 종수는 총 38,574종으로 전년 동기(2020년 하반기) 대비 0.2% 증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2021년 상·하반기를 합한 연간 도서 발행 종수는 77,724종으로 2020년(76,724종)에 비해 1.3%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해 주춤하던 출판 활동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2021년 하반기 발행 통계

(단위: 종, %)

상위 분류	기본 분류	발행 종수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증감 수	증감률	증감 수	증감률
유아동	유아	1,368	1,565	1,894	1,633	1,514	-380	-20.1	-119	-7.3
	아동(어린이)	2,702	2,246	1,936	1,425	2,687	751	38.8	1262	88.6
	소계	4,070	3,811	3,830	3,058	4,201	371	9.7	1143	37.4
교육	초등학습	2,154	1,710	2,218	1,409	1,579	-639	-28.8	170	12.1
	중고학습	2,447	1,706	2,177	1,656	1,992	-185	-8.5	336	20.3
	외국어	889	825	761	1,114	653	-108	-14.2	-461	-41.4
	취업/수험서/자격증	4,365	5,775	4,175	6,264	4,371	196	4.7	-1893	-30.2
	소계	9,855	10,016	9,331	10,443	8,595	-736	-7.9	-1848	-17.7
문학	소설	3,598	2,978	3,088	2,687	2,896	-192	-6.2	209	7.8
	시/에세이/희곡 등	4,415	3,659	4,904	3,985	5,160	256	5.2	1175	29.5
	소계	8,013	6,637	7,992	6,672	8,056	64	0.8	1384	20.7
인문	철학/심리	850	1,024	896	920	853	-43	-4.8	-67	-7.3
	역사/문화	973	884	1,166	913	1,166	0	0.0	253	27.7
	종교	2,702	2,409	2,558	2,149	2,410	-148	-5.8	261	12.1
	기타 인문학	1,209	984	1,389	1,136	1,337	-52	-3.7	201	17.7
	소계	5,734	5,301	6,009	5,118	5,766	-243	-4.0	648	12.7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2,111	2,013	2,019	2,882	2,346	327	16.2	-536	-18.6

상위 분류	기본 분류	발행 종수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증감 수	증감률	증감 수	증감률
실용	자기계발	699	666	721	842	733	12	1.7	-109	-12.9
	가정/생활	288	353	486	432	379	-107	-22.0	-53	-12.3
	요리/취미	476	447	546	454	354	-192	-35.2	-100	-22.0
	건강/스포츠/레저	451	503	472	550	416	-56	-11.9	-134	-24.4
	여행	458	302	259	198	271	12	4.6	73	36.9
	소계	2,372	2,271	2,484	2,476	2,153	-331	-13.3	-323	-13.0
사회과학	정치/사회	2,302	2,511	2,193	2,310	2,279	86	3.9	-31	-1.3
	경제/경영	1,726	1,883	1,629	2,123	1,751	122	7.5	-372	-17.5
	소계	4,028	4,394	3,822	4,433	4,030	208	5.4	-403	-9.1
과학기술	IT/컴퓨터	676	808	666	967	725	59	8.9	-242	-25.0
	자연과학	481	460	475	604	486	11	2.3	-118	-19.5
	기술공학	1,842	2,503	1,882	2,497	2,216	334	17.7	-281	-11.3
	소계	2,999	3,771	3,023	4,068	3,427	404	13.4	-641	-15.8
합계		39,182	38,214	38,510	39,150	38,574	64	0.2	-576	-1.5

출처: 출판정책연구팀

자료 제공: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국립중앙도서관

주: ①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로 입고된 2021년 하반기 도서 목록과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도서 목록을 취합한 국내 발행 도서를 반기 통계용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함. 만화(아동용 만화는 포함)와 잡지, 교구, 전자책, CD/DVD는 제외함.

② 기존 서점 분류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각종 기능사 자격증, 국가고시 준비 도서를 서가 배치 기준(과학기술, 사회과학 등)이 아닌 도서의 특성에 따라 '취업/수험서/자격증' 분야로 편입한 것임.

② KPIPA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 추이

- 2021년 하반기에 발행된 신간 도서의 발행 종수는 '교육'이 8,595종(점유율 22.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학' 8,056종(20.9%), '인문' 5,766종(14.9%), '유아동' 4,201종(10.9%), '사회과학' 4,030종(10.4%), '과학기술' 3,427종(8.9%), '예술/대중문화' 2,346종(6.1%), '실용' 2,153종(5.6%)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의 전년 동기 대비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 점유율은 '유아동', '예술/대중문화',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가 소폭 증가하고, '교육', '인문', '실용' 분야는 소폭 감소했다.
- 2021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분야별 발행 종수가 증가한 분야는 '예술/대중문화'(16.2%), '과학기술'(13.4%), '유아동'(9.7%), '사회과학'(5.4%), '문학'(0.8%)이었다. 반면 '실용'(-13.3%), '교육'(-7.9%), '인문'(-4.0%)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별로는 '아동(어린이)'이 38.8% 증가하여 2019년 수준에 근접했고, 이어서 '기술공학'(17.7%), '예술/대중문화'(16.2%)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이와 반대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분야는 '요리/취미'(-35.2%), '초등학습'(-28.8%), '가정/생활'(-22.0%), '유아'(-20.1%), '외국어'(-14.2%) 순이었다.

-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하반기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하반기의 분야별 발행 종수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과학기술’(7.7% → 8.9%), ‘예술/대중문화’(5.4% → 6.1%), ‘유아동’(10.4% → 10.9%) 분야는 증가하고 ‘교육’(25.2% → 22.3%)과 ‘실용’(6.1% → 5.6%) 분야는 감소했다.
- 지난 3년간(2019~2021년) 하반기 기준 발행 종수 추이를 보면, 전체 발행 종수는 2019년 39,182종, 2020년 38,510종, 2021년 38,574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아동’, ‘예술/대중문화’, ‘과학기술’ 분야는 2019년 대비 2021년 발행 종수가 다소 증가하여 분야별 편차가 존재했다.

2021년 하반기 신간 도서 발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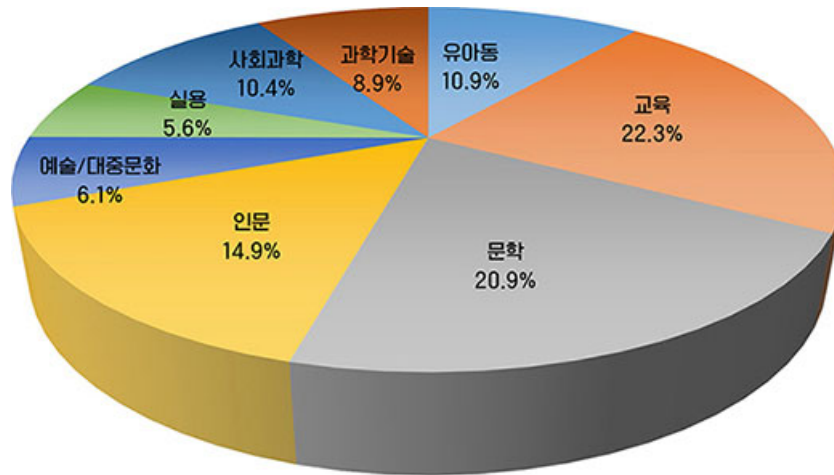
(단위: %, %p)

상위 분류	기본 분류	기본 분류 기준 구성비			상위 분류 기준 구성비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유아동	유아	4.9	3.9	-1.0	9.9	10.9	0.9
	아동(어린이)	5.0	7.0	2.0			
교육	초등학습	5.8	4.1	-1.7	24.2	22.3	-1.9
	중고학습	5.7	5.2	-0.5			
	외국어	2.0	1.7	-0.3			
	취업/수험서/자격증	10.8	11.3	0.5			
문학	소설	8.0	7.5	-0.5	20.8	20.9	0.1
	시/에세이/희곡 등	12.7	13.4	0.7			
인문	철학/심리	2.3	2.2	-0.1	15.6	14.9	-0.7
	역사/문화	3.0	3.0	0.0			
	종교	6.6	6.2	-0.4			
	기타 인문학	3.6	3.5	-0.1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5.2	6.1	0.9	5.2	6.1	0.9
실용	자기계발	1.9	1.9	0.0	6.5	5.6	-0.9
	가정/생활	1.3	1.0	-0.3			
	요리/취미	1.4	0.9	-0.5			
	건강/스포츠/레저	1.2	1.1	-0.1			
	여행	0.7	0.7	0.0			
사회과학	정치/사회	5.7	5.9	0.2	9.9	10.4	0.5
	경제/경영	4.2	4.5	0.3			
과학기술	IT/컴퓨터	1.7	1.9	0.2	7.8	8.9	1.0
	자연과학	1.2	1.3	0.1			
	기술공학	4.9	5.7	0.8			
합계		100.0	100.0	-	100	100	-

출처: 출판정책연구팀

2021년 하반기 신간 도서 분야별 비중

(단위: %)



③ KPIPA 출판사 발행 실적 추이

-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2019년 하반기 5,771개, 2020년 하반기 5,650개(전년 대비 -2.1%)였다. 2021년 하반기는 6,043개(전년 대비 +7.0%)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을 상회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출판사 설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 발행 실적 구간별로 보면 반기별(하반기 기준) 5종 이하의 신간을 발행한 출판사의 분포는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하반기 모두 77.3%로 동일했다. 6~10종 발행 출판사는 10.6%에서 11.2%로 다소 늘어난 반면, 11~30종 발행 출판사는 8.5%에서 8.0%로, 31종 이상 발행 출판사는 3.6%에서 3.5%로 각각 미미하게 줄었다. 신간 도서 발행 실적 구간별 비율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기별 1종 발행 출판사는 2020년 하반기 2,386개사(점유율 42.2%)에서 2021년 하반기 2,554개사(42.3%)로 거의 비슷했고, 반기에 101종 이상의 다품종을 출판한 출판사는 2020년 하반기에 51개사(0.9%)이던 것이 2021년 하반기에는 38개사(0.6%)로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발행 실적별 출판사 수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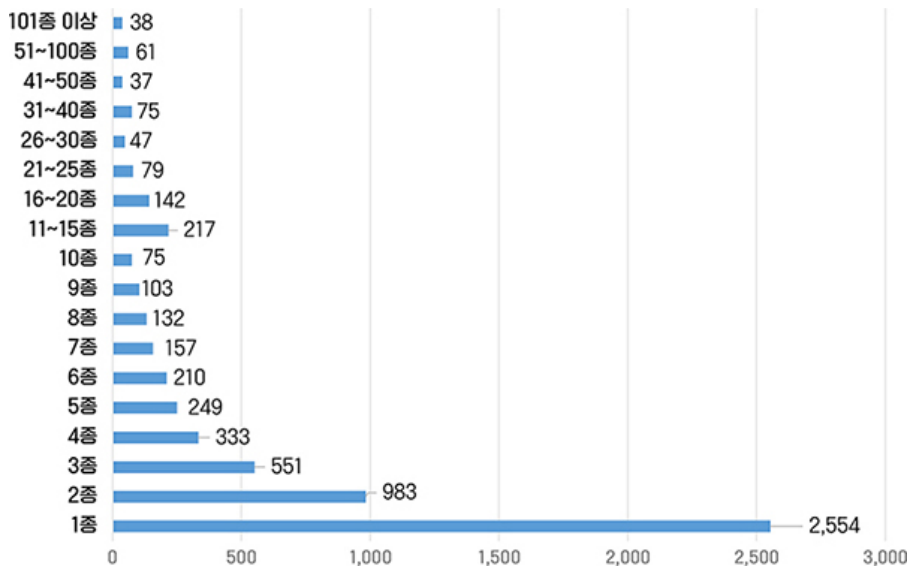
발행 종수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1~5종	1종	2,386	42.2	2,554	42.3	7.0
	2종	914	16.2	983	16.3	7.5
	3종	478	8.5	551	9.1	15.3
	4종	352	6.2	333	5.5	-5.4
	5종	235	4.2	249	4.1	6.0
	소계	4,365	77.3	4,670	77.3	7.0

발행 종수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6~10종	6종	179	3.2	210	3.5	17.3
	7종	142	2.5	157	2.6	10.6
	8종	125	2.2	132	2.2	5.6
	9종	76	1.3	103	1.7	35.5
	10종	76	1.3	75	1.2	-1.3
	소계	598	10.6	677	11.2	13.2
11~30종	11~15종	234	4.1	217	3.6	-7.3
	16~20종	122	2.2	142	2.3	16.4
	21~25종	83	1.5	79	1.3	-4.8
	26~30종	42	0.7	47	0.8	11.9
	소계	481	8.5	485	8.0	0.8
31종 이상	31~40종	60	1.1	75	1.2	25.0
	41~50종	36	0.6	37	0.6	2.8
	51~100종	59	1.0	61	1.0	3.4
	101종 이상	51	0.9	38	0.6	-25.5
	소계	206	3.6	211	3.5	2.4
합계		5,650	100.0	6,043	100.0	7.0

출처: 출판정책연구팀

2021년 하반기 발행 실적별 출판사 비중

(단위: 개)



나) 주요 출판 트렌드: 재테크로 기울어진 출판시장

- 2021년의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판타지 소설 『달려구트 꿈 백화점』이었다 (교보문고 집계 기준). 어느 해보다도 번역 소설 대신 국내 소설이 인기를 끌었던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에 소설이 22종 올라 전년도보다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22종의 경제/경영서가 100위권 목록에 올랐다. 주로 재테크 도서들이다. 소설은 꿈같은 이야기요, 재테크 책은 부자의 꿈을 키워주는 책이다. 그래서 교보문고는 연말 결산에서 2021년 출판시장의 키워드로 ‘꿈’을 꼽았다.
- 주목되는 것은 재테크를 필두로 한 경제/경영서의 약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삶이 팍팍해진 가운데, 주식·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며 출판시장 역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현실적인 소망을 반영한 재테크 책의 급부상은 최근의 독서 트렌드를 상징한다. 소액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고 재테크 관련 출판시장 역시 한국처럼 발달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경제/경영서 분야는 매출액과 점유율이 전년도에 이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2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교보문고 연간 집계에서 경제/경영서 분야가 2021년에 처음으로 점유율 1위에 등극했다. 경제/경영서는 판매량 증가율이 2019년 10.7% → 2020년 27.9% → 2021년 22.1%로 2년 연속 20% 이상 성장했다. 판매액 점유율도 2019년 7.5% → 2020년 9.0% → 2021년 10.1%로 계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판매 부수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중고학습(참고서) 분야이지만, 어른들의 생존참고서인 경제/경영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 경제/경영 분야가 단행본 출판시장의 맨 앞자리에 올라선 것은 무엇보다 재테크 책의 선전 덕분이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재테크 분야 이외에도 가상화폐 등 새로운 투자 수단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관련 도서의 판매가 열기를 띠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초심자와 파이어족을 꿈꾸는 2030세대의 열망이 담겨 있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조기 은퇴(Retire Early)의 합성어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해 40세가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하려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또한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모두 84종의 관련서가 출간되었다. 컴퓨터/IT, 경제/경영서, 인문서, 어린이/청소년 도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분야의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은 단연 경제/경영서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 전자책(e-Book)에서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 77』이 오르고, 상위 100위권 내에서 경제/경영서 분야가 가장 많은 35종을 차지하는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 독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자책 월정액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도(교보문고 e-Book sam 기준) 경제/경영 및 자기계발 분야가 베스트셀러 30위 중 63.3%나 차지하며 코로나19 이후 실용적 독서 경향을 뒷받침했다.
- 책과사회연구소가 전국의 10세 이상 국민 3,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코로나19와 읽기 생활 변화 조사>에서도, 선호하는 도서 분야(15개 분야 중 2순위까지 복수 응답)의 비중은 코로나19 전·후로 문학 도서가 62.4%에서 45.0%로 17.4%p 줄고, 그 대신 실용서가 74.7%에서 90.1%로 15.4%p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테크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12.9%p 증가한 것이 그 이유였다. 교양서의 선호 도서 비중은 코로나19 전·후로 거의 비슷했다.

- 어른들의 재테크 열풍은 어린이 도서로도 이어져 『세금 내는 아이들』,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등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었다.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여행』, 『장난감 말고 주식 사주세요!』, 『존리의 금융 모험생 클럽』 같은 책은 물론이고, 돈 공부나 부자 수업에 관련한 책들도 속속 발행되며 재테크 관련서가 어린이책 분야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2) 출판산업 이슈와 과제

가) 투명한 도서 판매정보 공유에 대한 관심 확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2021년 9월에 공식 가동을 시작했다. 출판사가 등록한 발간 도서의 메타데이터(기본 정보)를 유통사에서 공유하고 유통사의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도서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책 생태계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출판문화산업 인프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판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전산망의 운영이 원활해지고 각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다양한 기능이 실현되려면, 더 많은 메타데이터의 축적과 판매정보 연동을 위해 출판사와 서점의 참여가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5월 초 현재 2,520개 출판사에서 80,706건의 메타데이터를 등록하여 전산망의 활용 가치는 점차 커지고 있다.
- 당초 출판산업 내부의 유통·판매 효율화를 위해 추진했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추진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자 그 관심이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과 비견되며 투명한 판매정보 공개 요구로 이어졌다. 출판사로부터 정당한 판매정보 공유와 인세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유명 저자(장강명, 임흥택)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출판물의 투명한 판매량 공개와 인세 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화두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저자들이 도서 판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형 유통사의 판매정보를 공유하는 '도서 판매정보 공유 시스템'을 2021년 8월부터 전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2022년부터는 도서물류 회사(날개물류, 문화유통박스, 한국출판물류)와 연계하여 도서 출고정보를 희망 출판사와 저자에게 서비스한다. 저자는 출판사에서 받은 계정으로 판매 유통사별로 판매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저자와 판매정보를 공유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시스템에는 2022년 5월 초 현재 814개 출판사가 참여 중이다.
- 이러한 영향으로 개별 출판사나 플랫폼 차원에서도 저자 인세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출판사 창비는 도서의 제작과 판매, 인세 지급 정보를 저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자 조회 사이트를 2022년 2월에 개설했다. 저자가 쇠별 발행 부수, 매월 실 출고 부수, 쇠별 인세 지급 내역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최초의 사이트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그동안 출판사 등 파트너사(CP)에게만 공개하던 세부 정산 내역을 작가가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작가용 사이트를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출판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높은 플랫폼 수수료(45%)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국내 출판시장에서 영업하는 모든 출판사와 온·오프라인 서점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참여할 경우 유통정보 및 판매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참여 사업자 확대와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가 향후의 과제다.

나)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에 반발하는 출판계

-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인앱(In-app)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는 앱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들(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은 기존에 앱 외부의 결제 시스템(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해 구글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의 사용 대가로 결제액의 10~3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부담은 디지털 콘텐츠 구매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출판 플랫폼 기업들의 입장이다.
-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법률 검토를 거쳐 2021년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으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구글코리아가 2021년 11월에 상생협약까지 체결했지만 문제 해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웹툰과 웹소설, 전자책, 오디오북 등 디지털 출판 콘텐츠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환경에서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영업상의 권리 침해와 콘텐츠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KPIPA 출판산업 동향]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발행 통계 및 출판산업 트렌드를 심층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5월, 10월 「출판N」 공개)

지역출판이라는 바다 위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의 뜻을 올린다

장현정(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대표)

2022. 5.

2022년 1월 27일 오후 5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Busan Publication Culture and Industry Association, 약칭 BPCIA)'가 공식 출범했다. 축하 공연과 로고 디자인, 행사 진행 등 출범식의 모든 준비를 각 회원사가 함께 힘을 모아 치른 행사라 더욱 각별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태훈 부산시의회 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과 국내외 출판사와 서점 대표들이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부산경남만화가연대 최인수 대표도 참석해 웹툰 작가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며 힘을 실어주었다.

4월 기준으로 협회에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37개 출판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출범 이후 부산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공공기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주목하고 있다. 협회 집행부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의 시대에 원천콘텐츠로서의 출판이 지역의 문화와 산업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바쁘게 첫해 사업을 준비 중이다.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출범식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축사(좌), 김태훈 부산시의회 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우)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출범식 - 회원사 기념 촬영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가 갑자기 출범한 건 아니다. 지역출판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진단과 연대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그동안 이를 실행에 옮길 계기나 여력이 부족했다. 그러다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고 (주)호밀밭이 주최한 2018년 지역출판포럼을 계기로 출판사들의 연대가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에 의제화되었다.¹⁾ 이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기초로 김혜린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지역 출판조례가 2019년 5월 통과되며 탄력을 받았지만, 이후 코로나 사태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21년 연말에 다시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며 올해 1월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사이 부산시는 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출판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지역출판 지원을 주관하는 기관도 부산문화재단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전문인력 부족과 영세한 자본, 유통구조의 한계 등으로 자비출판이나 대행 출판 등에 머물렀던 부산의 출판사들도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빠르게 체질을 개선하며 나름의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왔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지역출판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1) 국제신문, “[현장 특·특] 지역출판 살리려는 생산·기획·항유자의 진지한 고민 돋보여, 2018 지역출판포럼”, 2018년 10월 30일.



2018년(좌), 2019년(우) 지역출판포럼

지역출판 활성화의 노력은 부산 바깥에서도 이미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2017년 5월, 제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도서전이 개최되면서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잡지 및 단행본 출판사 연대 조직인 '한국지역출판연대(약칭 한지연)'가 조직되었고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도서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 수원, 2019년에는 전북 고창, 2020년에는 대구 수성구, 2021년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었고, 2022년 제6회 도서전은 오는 9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2018년 2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진흥조례'를 제정했고, 이듬해인 2019년 5월 부산이 '부산광역시 지역출판진흥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9월 서울이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진흥조례'를 제정한 후 2020년 12월 타법 개정을 시행했고, 대구는 2019년 12월 '대구광역시 지역출판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출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서 진흥이나 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은 활발한 편이다.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 중 15개(88.2%),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07개(47.3%)에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13개 광역자치단체(76.5%)와 44개 시·군·구(19.5%)가 독립적인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대체로 지역출판 관련 조례가 독서 진흥에 집중되어 지역출판 생산자의 지원 정책에는 미흡하고, 지역별 특성과 차이가 보이지 않는 획일화된 조례 제정으로 차별화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조례 내용이 대체로 임의조항 표현으로 구성되어 강제성이 없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적한다.²⁾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출판은 규모가 영세하고 유통 구조가 불안하며 무엇보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출판 정책을 담당하는 일원화된 부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기도 한다.³⁾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출판 관련 지원사업도 오랫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는 출판과 관련해 명확한 역할을 맡은 부서가 설정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2) 김정명(2021), "지역출판 관련 조례 연구", 한국출판학회 연구 제98호, 한국출판학회

3) 최낙진(2018), "지역출판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방안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출판 관련 법령과 제도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 와서야 처음으로 마련되었는데, 지역출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고민은 이후로도 한참이 지난 2015년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정부에서도 출판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역의 독서문화와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해 왔다. 지금도 출판, 도서관, 서점 등 여러 정책이 따로 놀며 공회전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처럼 독서, 서점, 출판을 다루는 부서가 제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조례 제정과 협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시에서도 더 명확하게 책임과 역할을 가진 담당 부서를 설립하려고 계획 중이다.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는 출범과 동시에 2022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회원사들은 협회에 정보 교류와 교육,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 공동 마케팅 등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회원사 대부분이 1~2인으로 구성된 작은 출판사인 데다 수도권과 달리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한 경우가 많아 더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협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또한 2월 14일과 22일에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출판, 서점, 도서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엇보다 출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출판, 도서관, 서점 등 지역의 출판과 독서문화 정책이 따로 놓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서점을 통해 지역출판사들의 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 도서관의 사서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출판물에 관심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

이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협회는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특히 그동안 부산의 출판이 문화적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왔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취약했다는 비판에도 주목했다. 지역의 콘텐츠와 가치를 확산하고 자체적으로 규모 있는 기획을 추진하려면 이제부터는 비즈니스로서의 출판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현재 협회는 교육, 지역콘텐츠 출판 지원, 회원사 간 정보 공유 및 대외 홍보, 공동 시리즈물 기획, 지역 유관 콘텐츠 산업 연계, 지역출판인 권익 보호,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의 이니셜을 딴 'BPCIA 어워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독서문화 확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출판산업연구지원센터이나 부산북비즈니스센터 설립과 지역의 향토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출판기금 혹은 모태펀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출판사들과의 교류도 시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출판사들에 가장 시급한 공간인 물류 창고 확보를 통해 재고 관리나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구의 인쇄산업센터처럼 정보와 교육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출판문화산업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도 준비하려고 한다.

필자는 종종 특강이나 인터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판은 문화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책이 시대에 뒤떨어진 올드미디어라는 편견도 있지만, 어떤 분야든 시작할 때 책(기록)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하나의 프로젝트 혹은 삶이 끝나도 역시 책(기록)으로 남기기 마련인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렇게 책(기록)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부산의 출판사들은 이제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지식기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한다. 지역만의 구체적

맥락(context)을 톺아보고 이를 독자들의 시대적 감수성에 조응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야 한다. 기존 출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해야 하고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전환해 지역의 청년들과도 수시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시공간이 확장되고 실시간으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에는, 부산처럼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를 유럽의 작은 국가 하나처럼 생각하며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IT 기술이나 번역 앱 등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단일국가 내부의 시야로만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될 것이란 생각이다.

협회와 부산의 출판사들에도 숙제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데 관심이 많다. 우선 지역에 고급 지식을 선도하는 담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출판이 수도권에 과잉 집중되면서 최소한의 지식과 담론의 주도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타 영역으로까지 수도권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지만 독립서점, 독립출판, SNS와 같은 일상적 글쓰기, 독서 모임 등은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중출판의 시대에서 다중(개인)출판의 시대로 넘어가며 출판은 훨씬 일상적인 실천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출판사들은 여전히 전문가나 특별한 권위를 가진 소수만의 전유물로 출판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및 연결성을 놀라운 속도로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지역(local)'의 가치를 새롭게 증폭시킨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지역의 지식과 문화, 서사와 담론을 물리적 차원의 지역에만 가두지 않는다. 지역출판의 성과를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과 출판이 만나는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출판이 가진 문화로서의, 또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대변화와 조응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협회가 공공의 세금으로 지원만 바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각 회원사도 자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누구라도 매력을 느낄 만한 디자인과 결과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도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체질을 바꾸며 나아가야 한다.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출범식

끝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출판이 자칫 수도권과의 경쟁이나 제로섬 게임에서 더 많은 걸 차지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렇지 않아도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고 모든 것이 갈등과 경쟁으로 수렴되는 사회다. 전통과 역량을 갖춘 수도권의 출판사와 지역만의 감수성을 가진 지역출판이 서로 상생하고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으며 한국의 출판문화산업에 각각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막 출범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출범식에서 필자는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 속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모든 새로운 것은 변방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라는 문장이다. 모자란 점이 많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처럼 협회 출범을 계기로 더욱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부산의 지역출판 활성화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응원과 사랑의 남용을 부탁드립니다.



장현정(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대표)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인문과 예술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 출판, 강의, 문화기획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호밀밭 대표이사,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이며 지은 책으로는 『소년의 철학』, 『록킹 소 사이어티』, 『무기력 대폭발』, 『삶으로 예술하기』, 『아기나무와 바람』, 『이수현, 1월의 햇살』 등이 있다.

hjmiro@naver.com

facebook.com/hjmi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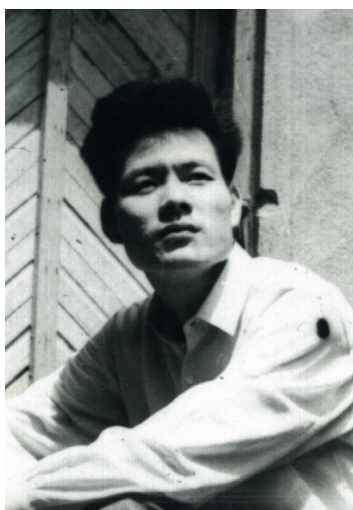
고(故) 이어령 장관이 한국 출판계에 남긴 것

이호재(동아일보 기자)

2022. 5.

작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가 생전에 펴낸 책들이 출판계에서 인기를 끄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2월 타계한 이어령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는 특별하다. 이어령이 생전에 펴낸 책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에 출간된 책까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수식어에 걸맞게 이어령은 죽음 뒤에도 여전히 출판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어령이 타계하기 전 출판사들과 계약한 책만 40여 권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딸 고(故) 이민아 목사를 위해 쓴 시 등을 모은 유고시집 『헌팅턴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한국인 이야기: 너 누구니』, 언어적 상상력과 창조적 근원에 대해 담은 『거시기 머시기』... 여러 출판사가 이어령의 죽음을 기리듯 신간을 펴내고 애독자들이 책을 사고 있다. 대체 이어령이 어떤 인물이기에 영면한 뒤에도 출판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1961년 20대



1995년 60대



2020년 80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碩學)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암 투병 끝에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이어령은 시대를 꿰뚫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지녔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필을 이어간 고인은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한 진정한 거인이었다.(사진: 영인문학관 제공)

한일 모두 휩쓴 베스트셀러 작가

이어령을 가장 명확하게 수식하는 단어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어령이 쓴 책들은 매년 서점가를 휩쓸었다. 질뿐만이 아니다. 평생 300종의 책을 출간했을 만큼 다작으로 유명했다.

이어령이 출판계의 스타로 떠오른 건 한국 문화의 본질을 파고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1963년)덕분이다. 이 작품은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을 모은 것으로 해외에서도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진기록을 세웠다. 발표된 지 50년이 넘은 지금도 한국인의 특성을 독창적인 관점으로 집어낸 명저로 꼽힌다. 그동안 팔린 책 부수는 250만 부에 이른다.

이 책은 한국의 문화를 최초로 분석해 낸 최초의 '한국인론'으로 불린다. 울음, 굶주림, 웃놀이, 돌담, 하얀 옷 등 일상적 소재 속에서 한국 문화의 본질과 정서를 탐구한다. 그리고 한국의 풍토에 대해 다뤘다. 한국이 1960년대 산업화 사회에 들어서며 몸살을 앓아 암울했던 시대를 산 이어령의 지적 여정이 녹아 있다. 특히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진 한국인에게 민족적 긍지와 정체성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에 대해 다뤘던 이어령이 눈을 돌린 건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다. 이어령은 일본 문화를 파고든 문화비평서 『축소지향의 일본인』(1982년)을 내놓는다. 이어령이 프랑스 작가 롤랑 바르트의 『일본론』을 읽다가 우연히 축소지향의 개념을 떠올렸고, 1년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연구 생활을 하면서 1,000매가 넘는 원고를 6개월 만에 일본어로 썼다. 두문불출하며 집필한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어령은 일본의 각종 언론과 강연의 초청을 받게 된다. 한국인이 쓴 책으로는 최초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어령은 책에서 그동안의 일본론이 서양인과 비교한 일본인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일본 문화가 가진 독창적인 특징이 바로 축소지향이라고 주장한다. 하이쿠, 분재, 절부채 등이 일본인이 지닌 미니멀리즘이라는 것. 이런 특징이 일본을 공업사회의 거인으로 끌어올렸고, 침략의 야욕을 벌이는 등 확대지향을 하려는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다고 평가한다. 축소지향적 성격이 일본 산업계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가 워크맨, 피카츄다. “도깨비가 되지 말고 난쟁이가 되라”는 이어령의 지적에 일본인은 열광했다.

이어령은 21세기에 들어서도 꾸준히 자신의 사상을 담은 책을 펴냈다. 대표적인 서적이 『디지로그』(2006년)다. 2006년 1월 이어령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말인 '디지로그'를 전면에 내세운 신문 칼럼을 연재했다. '디지로그'라는 말이 그전에도 쓰이긴 했으나 공적인 용어로 사용한 사람은 이어령이 최초였다. 이 글에서 이어령은 디지털만을 앞세운 당시의 정보화 사회의 측면을 지적한다. 어금니로 씹는 디지털을 만들어내라는 이어령의 제안은 가히 혁신적이었다.

평론으로 세운 한국 문학계

이어령의 첫 사회생활은 '문학평론가'부터 시작됐다. 특히 이어령이 1955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보에 발표한 '이상론'은 지금 읽어도 혁신적이다. 당시 이상론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작가 이상

(1910~1937)은 작품에 도시를 담았다. 송농 마시던 시골 이야기가 아니라 커피 브랜드 MJB가 나오는 작품을 썼다. 또 한국말을 발전시켰다. 이상 이전의 작가들은 문장투의 말을 써왔다. 마지막으로 자아를 발견했다. '마이 파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심어줬다. 난해하다고 여긴 이상을 이어령은 쉽게 풀어 '천재 이상'으로 알렸다. 이어령의 시각이 독특한 건 당시 이상은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미친 사람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그 난해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풀어가는 솜씨가 화제를 끈 것이다.

그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건 얼굴의 여드름도 채 가지지 않은 스물두 살 때였던 1956년. 한국일보에 기고한 '우상의 파괴'로 문단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대 거장들을 '우상'으로 몰아붙이며 소수 원로 문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한국 문단의 권위주의와 위선을 아프게 꼬집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어령이 기성 문단을 파괴했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이어령이 지적했던 건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 옆에 가서 떠받들고, 모시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작가라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어령은 이 글에서 당시 문단의 거목이었던 소설가 김동리, 모더니즘 시인 조항, 소설가 이무영을 비판했다. 그 이후로도 이어령은 황순원, 염상섭, 서정주에게 비판을 가했다. 이후 이어령은 1972년 출판사 '문학사상사'를 설립해 월간 '문학사상'을 창간하고 '이상문학상'을 제정하며 문단을 이끌었다.

그가 문인들을 비판만 한 것만은 아니다. 그는 한편으론 문인들의 구명운동에 힘썼다. 대표적인 것이 1967년 분지 필화사건이다. 1965년 3월, 작가 남정현의 단편소설 「분지」가 발표됐다. 발표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개월 뒤 북한의 한 잡지에 실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정현은 중앙정보부로부터 이 소설은 북한의 누군가가 써서 건네준 것일 터이니 그 접선 내용을 밝히려는 이유로 끌려간 뒤 고문을 당했고 검찰에 송치됐다가 7월에야 풀려났다. 1966년 남정현은 다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령은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해 남정현의 구명을 도왔다.

말년에도 활발히 구술 집필

이어령이 출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인 의미로 확대해나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책이 2010년 출간된 『지성에서 영성으로』이다. 이어령은 원래 무신론자인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는 2007년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령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변신을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딸인 고(故) 이민아 목사의 영향이 크다. 갑상선암이 재발해 있던 딸이 설상가상으로 실명하게 되자 이어령은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뒤 놀랍게도 7개월 만에 딸의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어령은 2013년 『생명이 자본이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다음 키워드로 생명을 제시한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경제 패러다임 중에서, 산업자본주의가 가진 병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드러나고 있었고 미국을 필두로 하는 금융자본주의 역시 2000년대 후반을 강타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그 그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앞으로의 경제 이념은 돈을 위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한 생명의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말년에 그는 구술로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을 설파해나갔다. 그는 타계 전까지 2030세대가 절망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시대든 세대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은 '창조적 긴장 관계'가 사라진 게 문제라며 '8020'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80대와 20대가 공생해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필을 이어갔다.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친병(親病)' 생활을 한 이유도 글쓰기 때문이었다. 서재에서 말하면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업했다. 별세 전날까지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열 정도로 생생한 아이디어가 넘쳤다.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영면할 때까지 끝까지 진통제를 먹지 않았다. 그는 죽음이 다가온 순간에도 초롱초롱한 눈빛을 잃지 않았다. 그가 항상 강조하던 '메멘토 모리'를 최후의 순간까지 실천하며 죽음 앞에서 의연했다.

'문화창조자'로 족적 남기다

이어령이 한국 출판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그가 출판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꽤나 독특했다. 그는 자신을 '출판인'이나 '문학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그는 문화계 전반을 종횡무진하며 자신이 글로 썼던 이상향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했다.

대표적인 게 1988년 서울 올림픽 개·폐회식을 맞아 냉전 종식을 호소하는 명문 '벽을 넘어서'를 만들었던 일이다. 굴렁쇠 소년을 기획해 평화의 가치를 고요하고도 강렬하게 세계에 알렸다.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을 설립했다. 이어령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발판 삼아 동서양 문화와 한중일 3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으로 기호학회 창립과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를 개소하기도 했다. 수많은 직함과 호칭 중 이어령이 가장 좋아했던 건 '문화 창조자'였다. 방대한 활동을 펼친 데 대해 그는 "난 평생 지적 호기심으로 우물을 판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출판계에 큰 시사점을 준다. 최근 문학계와 출판계는 정체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넷플릭스, 애플TV플러스 등의 플랫폼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서점가 베스트셀러를 휩쓸고, 유명 아이돌 가수가 언급하는 책이 화제에 오른다. 반대로 문학, 출판계를 벗어나 활동하는 이들을 향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어령처럼 경계를 넘어 종횡무진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어령이 타계한 이후 가장 관심을 받은 책은 그의 인터뷰를 담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다.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지막 영향력은 타인의 펜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의 인터뷰집이 인기를 끈다는 건 그가 출판계에 미친 영향이 오직 필력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말을 통해서 문화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를 역설한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평생을 호기심으로 버텨온 지식인의 성찰에 독자들은 반응했다. 이어령의 지혜는 책에 담겼지만 출판계를 넘어 지식의 영역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출판계가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와 경계를 넓힌 일이야말로 이어령이 이룬 가장 큰 성취가 아닐까.

이호재(동아일보 기자)

2015년 동아일보에 입사했고 현재 문학 출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콘텐츠라 믿는다.

한국 그림책의 국제화 노정(路程)

이수지 그림책 작가의 2022HCAA 수상 그리고 이후의 과제

심향분(전 KBBY 회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22. 5.

지난 2022년 3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 11시에 이탈리아의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 현장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IBBY(The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The 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HCAA)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HCAA는 1956년부터 지금까지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문학계가 주목하는 권위 있는 국제상이다. 2022HCAA 심사위원장인 준코 요코타는 2022년 후보자 경선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올해 수상작가의 작품세계를 간단히 소개한 후 수상자로 한국의 그림책 작가인 '이수지'의 이름을 호명하였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결과 발표를 보던 많은 사람들은 늦은 밤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기쁨을 나누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2020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ALMA) 수상자로 백희나 작가가 선정된 지 2년 만에 또 한 번 전해진 그림책계의 커다란 쾌거이다.

권위 있는 국제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세계 어린이문학의 역사라는 커다란 흐름에 한국 그림책이 당당히 함께 자리하고 교류되고 있으며 현대 그림책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며 세계 어린이문학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체감적으로 확인되는 물리적 현상으로는 저작권 수출이 급증하며 번역 수출이 활발해지고 국내외적으로 수상작가의 작품에 대한 유통 판매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국제상에 작가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수상자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측되는 현상이다.

또한 수상 작가에 대한 관심이 책이라는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될 것이다. 결과 발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서 이수지 작가와 관련된 자료가 급증한 것을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외 연구지 등에서도 이수지 작가에 관한 연구 의뢰, 인터뷰 의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 자료들 또한 출간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지의 그림책 연구자들이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을 탐구하고 있기에 앞으로 연구물의 급증도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해 작가의 그림책이 언급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며 더 많은 독자들이 수상자의 그림책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 여러 나라

출판인들은 이수지 작가의 작품에 주목할 것이고, 번역 수출로 이어진 그림책은 해외의 도서관 서가로 들어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해외 독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상의 수상은 도서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상은 한국 그림책의 우수성을 세계에 직접적으로 알리며 활동 반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이다.



2022HCAA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 IBBY 부스

그림책계 국제상은 여럿 있다. 볼로냐 라가치상과 같이 최근 신작에 대한 개인의 응모에 의해 운영되는 상들이 다수이다. 이는 국제도서전 참가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출판인과 작가는 작품을 알리기 위하여 국제도서전에 참가하고, 출품된 작품이 라가치상에 선정이 된다면 작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수상 내역을 보면 한국 그림책은 매년 선정작에 여러 작품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 그림책의 우수성은 탄탄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2022년에도 『여름이 온다』(이수지 글/그림, 비룡소, 2021)와 『커다란 손』(최덕규 글/그림, 운에디션, 2020)이 볼로냐 라가치상에 선정되었다.

반면 1966년부터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서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그림책 비엔날레인 BIB(Biennial of Illustration Bratislava)는 개인의 응모가 아니라 국가마다 지정된 추천 기관(nominee body)을 통해 추천된다. BIB는 그림의 예술성에 주목하여 아름다운 그림책을 뽑는 국제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역시 한국 그림책은 처음 출품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상작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마다 수많은 신간들이 쏟아져 출간되고 있다. 독자들은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할지 어려움을 가질 정도이다. 그래서 국제상은 자연스럽게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상이 아닌 작가상은 대개 BIB처럼 국가마다 지정 추천 기관을 통해 추천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과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ALMA)이 대표적이다. 이수지 작가가 수상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은 IBBY 주최로 195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국제상으로서, 문학과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 활동을 하며 전 세계 어린이문학계에 영향력이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영예롭고 권위 있는 상이다. 도서 한 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작품 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래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Little Nobel Prize)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 생존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전 생애적인 작품 활동과 업적을 고려하고 수여하

는 상이기에 수상자가 되는 순간 작가의 모든 작품들은 조명을 받는다. 수상 작가의 작품은 우선적으로 세계 여러 언어권에서 번역 출간하고, 여러 국가의 거점 도서관으로 들어가 어린이들에게 읽힐 것이며, 연구자들은 작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린이문학계에 작가의 이름은 더 널리 알려지게 되며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국제상들은 각기 다른 심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 국제상에 작가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후보 작가를 선정한다. 그리고 기준에 부합되는 작품 활동을 근본으로 작가의 전 생애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요청 내용에 부합되는 정보들을 수합한다. 특히 대표 도서 5편을 선정하여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가, 작가와 작품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가, 그래서 작품들이 얼마나 여러 언어로 번역 수출되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2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자리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한 명만 추천한다는 면에서 작가 추천에 신중을 기하고 심혈을 기울인다. 어떤 작가를 추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작가를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작품의 글과 그림이 충분히 문학적으로 예술적인가. 둘째,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적인 상상력을 북돋우며 동시에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관점을 지니고 있는가. 셋째, 예술적 표현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작가의 창작 활동 기간 동안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작품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창작 활동이 계속 공헌할 수 있는지 가능성까지 가능하다.

작가를 추천하는 각 국가 기관들은 이러한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작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심사 자료를 준비한다. IBBY의 한국위원회인 KBBY는 BIB, HCAA, ALMA 등 국제상에 한국 작가를 추천하는 지정된 추천 기관이다. KBBY는 오랜 시간 공들여 국제상 플랫폼에 한국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제출되는 자료는 작가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와 대표 작품 5종이다. 이러한 제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작가에 관한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며 작가를 연구한다. 작가의 생애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출간된 도서 정보, 수출 이력, 대표 도서 5종의 선정 그리고 특징적인 작품 세계 등을 골격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상에 추천할 작가를 선정하면 미리 구축해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가 포트폴리오 준비에 돌입한다.

작가의 작품 활동을 전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와 그의 작품을 심사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수출 실적은 없지만 작품성의 측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우리 그림책계를 대표할 만한 작가라고 판단되어 후보 작가로 추천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심사위원들에게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영문화해야 하기에 큰 에너지가 소요된다. 후보자로 추천된 작가에 관한 자료는 최소한 심사위원들이 읽고 검토할 수 있도록 영문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작품의 영어본을 마련하는 것은 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상 플랫폼에 한국 작가를 지속적으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심사용 작품들에 대한 번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실정이다.

추천 자료 준비 이외에 세심하게 추가 활동이 요구되는 것도 현실이다. KBBY는 2020년 10월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한국 후보로 이수지 작가를 등록하였다. 이후 이수지 작가에 관한 방대한 자

료를 수집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였으며 2021년 1월 준비된 모든 자료들은 IBBY 본부인 스위스 바젤로 보내졌다. 추천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작가 알리기에 돌입하였다.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기회를 만들어 여러 국가의 현지 독자들에게 이수지 작가를 소개하고 그녀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사회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가의 정보에 접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썼다. 대표적인 예로 위키피디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작가를 소개하는 영어 자료를 탑재함으로써 세계 독자들이 이수지 작가와 작품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겸하였다.

작가에게 수여하는 국제상은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는가, 그래서 세계 독자와 소통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즉, 작품들은 먼저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출이 되었다고 현지 독자들에게 바로 읽히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 어느 구석에 놓여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절판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도 해외 독자이다. 연구자와 도서관 사서가 심사위원의 중심 구성원을 이룬다. 심사용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처음 만나는 작가라면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작가들을 검토해야 하는 심사 과정상 심사위원들이 추천된 모든 작가의 작품세계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이 해외 현지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심사위원들이 한 번쯤 작품을 접해보았는가는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202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오른 6인의 작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탈리아의 베아트리지체 알레마냐(Beatrice Alemagna), 일본의 아라이 료지(Ryoji Arai), 폴란드의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Iwona Chmielewska), 아르헨티나의 구스티(Gusti), 캐나다의 시드니 스미스(Sydney Smith)는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작가들이다. 여러 작품들이 이미 한국에 번역 출간되어 있으며, 전시와 작가와의 만남 등의 기회를 통해 국내 독자와 여러 번 만난 바 있다.

이수지 작가 역시 그녀의 작품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잘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유럽의 어느 갤러리를 방문하더라도 그곳의 책방에서 어렵지 않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수지 작가는 다양한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독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이수지 작가는 5명의 작가들과의 경합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작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이후 국제상에 지속적으로 추천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작품들의 수출은 기본이고 연구자, 사서, 교사, 어린이 등 현지 독자들이 작가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책방, 도서관, 갤러리 등 어린이들이 머무는 곳에 책이 놓이고 현지 독자들이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마다 책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가와 작품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용이한 환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교류 활동을 기획하고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금 마련에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 수출이 되었든 안 되었든 현지 독자들이 우리의 책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의 기회 마련에 시급함을 느낀다. 특히 도서관은 책과 만날 수 있는 일상 속 중요한 거점 시설이다. 현지 독자들이 도서관과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우리의 책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KBBY는 2019년부터 도서관을 통해 그림책과 작가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려움은 많다. 그러나 소개되었을 때 현지의 반응은 뜨겁다.

예를 들어 2021년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공동주관으로 독일의 함부르크시립도서관과 괴팅겐 대학교 국립도서관에서 옛이야기 그림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옛이야기 그림책은 한국 특유의 시각 예술을 보여주는 장르이다. 옛이야기 그림책을 현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 글을 삽입하여 도서관에 기증하였으며, 도서 전시와 더불어 현지 스토리텔러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 부모, 사서, 교사들은 이야기의 즐거움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옛이야기 그림책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 그림책의 우수성은 이미 국제상 플랫폼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독자들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한 상황이다. 일반 독자들과 만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그림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면 이는 수출의 가능성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한국 그림책과 어린이문학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 아카이빙에 한국의 작가와 작품이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위키피디아와 유튜브 등 일반 독자들의 접속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 조성은 필수적이다.



괴팅겐 문화센터에서 옛이야기 그림책 영상 상영과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심향분(전 KBBY 회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림책 연구자이며, KBBY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문학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동의 확장에 힘을 모으고 있다.
shim1324@empas.com

대형 출판사를 그만두고 1인 출판사를 시작하다

이승현(좋은습관연구소 대표)

2022. 5.

그래, 그렇게, 시작했다. 나도 창업이란 걸 했다. 45라는 숫자가 내 목에 걸렸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다른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다른 후배들이 그럴 것처럼 나도 창업이란 걸 시작했다.

창업 아이템으로 출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소자본으로 1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책 한 권을 내는 것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본다면,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책 한 권을 낼 수 있다(물론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중성이 전혀 없는 책만 아니면 서점에서 내 책을 팔아주기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책을 받아주고 매장에 비치도 해준다. 즉, 내 창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준다. 마냥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이라는 우군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소위 대박이라는 게 터지면 삼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물론 대박은 로또 같은 것이다. 하지만 로또보다는 훨씬 터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고 스스로 책 좀 읽었다 생각한다면 일단은 한번 맛은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다. 물론 사업적으로 계속 유지되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등등의 이유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출판을 매력적인 사업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처럼, 사실 최근의 대외 환경을 생각하면 출판은 더 이상 잠재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출판을 콘텐츠 사업이라고 확대 해석하면 다르겠지만 출판 그 대로만 본다면, 점점 사양길로 들어가는 산업이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제는 점점 더 떠나가는 사업군이다. 출판업계에 들어온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책 만드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비용은 줄이면서 부가가치는 높아지는)된 점은 필름을 뽑아 인쇄하던 것에서 필름이 없어졌다는 정도이지 저자를 섭외하고, 편집을 하고, 표지를 고르는 과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아, 한 가지 개선된 게 있긴 하다. 바로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 속도. 지금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파일을 주고받고 있으니 이전보단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졌다. 가끔 '옛날에는 카카오톡 없이 어떻게 책 만들었지' 하고 생각할 정도다.

여하튼, 출판은 여전히 답보 중이고 인제는 유출되고 있으며, 나 같은 10년~20년차의 출판의 꽃가마를 탄 마지막 세대들은 조직에서 떠밀려나와 모두가 1인 출판 창업을 하고 있다. 책은 생각만큼 안 팔리

고,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 히트작이 나오면 ‘역시 출판의 맛은 이런 거야’ 하면서 쓴맛 단맛을 오가는 것. 그것이 출판 창업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맛을 듯싶다.

출판 비전을 세우기까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과거를 답습하는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좀 더 트렌디하며(=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트렌디한 주제를 쫓는다는 것이 아닌) 기존의 출판 룰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생산과 판매 시스템의 개선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와 동일한 출판이 될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출판업의 현실 논리 속에 갇힐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옮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실, 2013년에 회사를 옮기면서 잠깐 창업의 기회가 있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출판에 대한 나의 확신이 없어서였다. ‘좋은 책을 내고 싶다, 많이 팔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출판을 해야 하는지, 나의 출판 비전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많이 파는 것으로 출판의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책이라는 게 내내 족족 잘 팔기란 정말 쉽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는 결국 사업의 영속성에 계속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즉, 많이 파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출판을 해서 사회에 메시지를 낼 것이냐’였다.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한 출발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서 근속 5년이 될 무렵 다시금 창업에 대한 고민과 내가 해야 하는 출판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보기로 했다. 우선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와 책을 멀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주목해보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창업의 비전을 세우기 이전에 출판의 미래와도 연관된 것이었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뭘까? 나는 두 가지에 주목했다. 지식과 정보로서의 가치와 재미로서의 가치. 이 두 개의 가치가 다른 미디어에 뺏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책을 통하지 않고서도 고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책 이상의 재미를 주는 영상 등이 넘쳐나는데 더 이상 머리 쓰면서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었다.

나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재미를 찾고 지식과 정보를 찾는 이유는 뭘까? 좀 멍뭉그려 말해서 ‘변화’가 아닐까? 결국은 해당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책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 혹은 책을 쓴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러려면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움직여야 한다. 즉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책의 역할이 지식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미디어와 차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결국 출판을 제조에서 서비스로 바라보는 생각 전환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러보니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다만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다. 우리 책을 사면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당신이 원하는 재미를 좀 더 극대화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을 사면 매주 혹은 매달 양질의 콘텐츠를 메일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한, 학습을 주제로 ‘학습단’이라는 독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책을 사서 카페라는 공

간에 독자들이 모여 함께 학습하는 서비스였다. 이 방식은 적극적인 어머니 층이 독자로 있는 유아·초등 과정의 책과 아주 잘 들어맞아 마케팅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회사는 이를 성인으로 확대하는 시도를 했다. 이번에는 ‘완독단’이라는 이름으로 완독이 어려운 학습서를 함께 공부한다거나, 두꺼운 벽돌 인문학 책을 함께 읽는다거나 하는 등의 독자 서비스를 실험해보았다. 성인의 경우에는 아동 학습서에 비해 직접적인 도서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마케팅 활동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독자들이 책으로 지식을 얻은 기쁨만큼 책 한 권을 스스로 완독하고 뗐다는 기쁨을 더 크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새로운 출판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미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많았다. 학원이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었다. 학원을 다니려면 지정된 교재를 사야 되고, 그것은 결국 책이 입장권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았다. 경매 노하우를 얻기 위해 경매 학원을 수강하고 그곳에서 추천하는 책을 구매하는 행위 역시 이와 유사했다. 그런데 이제 창업하는 마당에서 내가 학원 같은 독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독자의 독학 과정을 돕는 정도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를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언어로 이 과정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장 비용이 많이 들고 판매에서 출판사 브랜드력이 결정적인 학습서 시장을 노크할 순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계발 분야에서 이를 독자들에게 ‘습관’으로 소개하고자 했다.

자기계발은 독자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습보다는 낮은 허들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지만 만들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주목했다. 이미 사람들은 이것에 돈을 쓰고 있었다. 특히 나쁜 습관은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병처럼 다뤄지면서 사람들에게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좋은 습관은 이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었고 조금은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그래, 변화(지식과 정보의 습득, 재미의 습득)를 위한 좋은 습관을 한 권씩 정리해서 내보자. 그리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면 책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을 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다르다. 그리고 출판을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로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나의 출판 비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 과정이 다소 험난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1인 출판을 시작하다

2019년 9월 나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름은 “좋은습관연구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콘텐츠로 제공하고 이를 실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내가 내세운 사명문이었다.

회사의 비전을 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색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영업자 출신의 선배와 이 주제를 놓고 한참을 토론했다. 하지만 선배는 이렇게 얘기했다. “좋은 취지고 의도인 줄은 알겠는데, 책 내기를 그렇게 형식화하면 기획의 폭이 좁아져 책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독자 서비스도 하고 책도 내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했다. 그때는 막 비전을 세우고 일을 계획하던 시절이라 타협이란 없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될 것 같았다. 결국 그 선배와는

함께 하지 못하고, 혈혈단신 1인 출판을 시작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선배의 우려와 지적은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1~2년의 시간을 썼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9권의 책을 냈다.

내가 내고 있는 책은 기본적으로 “습관 시리즈”라는 범주에 속해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책을 내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첫 번째 책은 습관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영어 회화를 다룬 책이었다. 이 책의 경우 총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10문장을 공부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20일은 어떤 것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시간이다. 연구소에서는 이 책을 중도 포기 없이 완독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독자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출간된 지 2년이 넘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도 매달 30명 정도가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책 판매가 여의치 못해 아직 초판도 다 팔지 못했다. 초기에는 독자 서비스가 인기를 얻어 책 판매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은 그저 이상에 불과했다.



독자들을 관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책은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는 말처럼 우연처럼 베스트셀러라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서비스는 그렇지 않았다. 성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조금씩 계속해서 퀄리티를 높이면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사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쏟는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시간을 점유하고 사용자의 습관이 되는 서비스가 되는 건 쉽지 않다. 물론 그런 전문 서비스 기업들과 내가 경쟁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매력을 느끼기 위해선 좀 더 차별적인 요소들이 필요했다.

첫 번째 책을 그렇게 초판도 팔지 못하면서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책 모두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그리고 모든 책을 독자 서비스가 가능한 책으로 만들기도 어려웠다. 학습의 요소가 강한 책일수록 독자의 니즈도 크고 그걸 서비스로 구현하기도 쉬웠지만, 그렇지 않은 책은 일반 단행본처럼 '이런 좋은 습관이 있으니 알아서 열심히 책에 나온 대로 따라해 보세요.'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창업을 하며 내가 본래 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내는 책마다 초판 수준에서 성적이 맴돌다 보니 더 많은 책을 빨리빨리 내려는 생각이 강해졌고, 이 생각은 책을 펴내는 일과 독자 서비스라는 두 개를 동시에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나는 고민을 안고 주변 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내 고민을 듣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를 포기하라고 했다. 책을 포기하든지 독자 서비스를 포기하든지. 지금 역량으로는 둘 다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두 가지 모두를 붙들고 있다가는 둘 다 제대로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결단이 필요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 현실 위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독자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연구소에서가 아닌 독자 스스로 하는 것으로 체재(體裁)를 바꾸었다.

즉, 이전에는 책을 읽고 책 속 실천 과제(예를 들면, 경제 신문을 읽고 인증하는)를 출결 관리하듯 관리했던 일을 이제는 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연구소는 그저 그 터를 열고 닫는 정도로만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신 습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결국은 잘 팔리는 책이 나와야 더 많은 독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이들의 습관 만들기도 서비스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려놓으니 마음이 좀 편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의 브랜딩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좋은습관연구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믿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좋은 의도로 받아 줄 거라 생각했다.

브랜딩의 핵심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콘셉트에 맞는 책을 잘 만들어 잘 파는 일이다. 나는 어려운 개념을 습관으로 윤색하는 작업 그리고 특정 직군의 습관을 소개하는 일로 방향을 잡았다. 『시장 조사를 잘하는 습관』, 『트렌드를 읽는 습관』,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 등이 바로 개념을 습관으로 윤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책들이다. '시장 조사가 무엇이다'는 식의 개념과 법칙 대신 '시장 조사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습관으로 풀어 전달했더니 독자들은 이해하기 쉽고 친절한 책이 나왔다고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판매 반응이 좋았고 모두 중쇄 이상을 판매했다. 특정 직군의 습관을 소개하는 책의 경우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 『결국엔 콘텐츠』 등을 냈다. 이 책들은 각각 번역가, 카피라이터, 방송 PD 직군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자신의 직업 세계를 조망하고 그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들도 모두 중쇄 이상의 판매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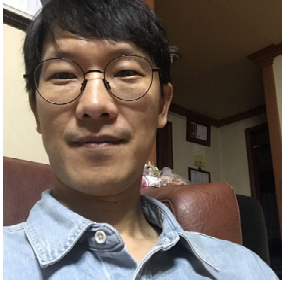


좋은습관연구소의 책들

이런 식으로 현재 나는 19번째 좋은 습관까지 개발을 마쳤으며 앞으로 100번까지의 좋은 습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작할 때는 5년 안에 100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벌써 3년을 써버려서 앞으로 도합 10년 안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해보려고 한다(1년에 10권을 내는 꼴이다). 과거의 창업 선배들은 10권 정도의 책을 내보면 출판의 생리나 앞으로의 과제 등을 안다고 했고 출판사로서 생존의 교두보는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내 경우 100권을 목표치에 두고 100권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출판의 비전과 과제를 재점검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고자 한다. 그러니 100권을 내는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고 생존해야 하며, 창업의 뜻을 적어도 책만큼으로는 그때까지 반드시 유지하려고 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내 능력치로 볼 때는 그 정도는 해봐야 뭔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길게 말씀드렸다. 창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 중 가장 중요한 비전 설계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다. 모두들 꿈을 크게 꾸고 비전을 웅대하게 세우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것은 그림 속 이상 같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설계도를 그렸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창업의 큰 결심과 다르게 결국은 기존 출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출판을 한 셈이 되었다. '이게 올바른 것인가, 유의미한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일 같이 회고를 하고 있다. 큰 회사에 있다가 1인 출판으로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 시행착오도 결국 이 부분이라 해야겠다. 큰 회사에 있을 때는 생각한 대로 다 해냈으니,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 그것은 정말 착각이었다. 설계도가 아무리 멋져도 시공 능력이 없다면 설계도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뒤늦게서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나는 왜 출판 대기업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 이 얘기는 이번 글에서는 다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어쩌면 이 내용을 듣고자 원고 청탁을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은 것 같기도 하다. 만약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왜 대형 출판사에서 본부장(실장)의 자리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능력 수준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지 처절한 자기반성의 글을 한 번 더 쓰도록 하겠다.



이승현(좋은습관연구소 대표)

2003년 출판계에 들어와 21세기북스, 리디북스, 길벗 등 대형 출판사와 전자책 서점을 거친 다음 2020년 1인 출판사 '좋은습관연구소'를 창업했다.

LSH01065105107@gmail.com

fb.com/puco21

그림책 출판사 ‘윤에디션’의 낯섬과 새로움

최덕규(그림책 작가, 윤에디션 제작부장)

2022. 5.

그림 그리는 것이 전부였던 필자가 얼떨결에 윤에디션의 제작부장이 되었다. 시작은 김윤정 작가의 『롱폴드아웃북』(이하 『롱북』)이었다. 『롱북』은 여러 번 접혀 있는 그림을 손으로 펼치면 생각지도 못한 그림으로 변신을 거듭하게 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림책이다. 이 책은 5번 접힌 종이 3장으로 구성되었고 접힌 3장의 종이가 병풍에 나란히 붙어있는 듯한 독특한 제작 형식의 그림책이다. 기존의 제본 공장에서는 취급하지 않았기에 아는 편집자를 통해 제작 업체를 소개받았다. 200부를 제작했고, 1권당 2만 원에 작가 이름을 걸고 SNS에 올렸다. 과연 누가 선뜻 사줄까 싶었는데 몇 시간 만에 200부가 전부 소진되었다.

고군분투한 첫 독립출판물의 가능성을 맛본 값진 경험이었다. 작가의 품값을 떠나서 배송비를 부담하며 1만 원에 제작해서 2만 원에 파는 것이 과연 수지 타산이 맞는 장사였을까? 제작부장으로서는 돌이켜보게 된다. 제작비용을 낮추고 제작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작 업체를 알아보았다. 『롱북』은 인쇄소를 거쳐 종이 모양을 따내는 톰슨 업체 그리고 접어주고 풀칠해서 합본하는 수작업 제책 업체와 하드커버 제작 업체, 케이스를 만들어 줄 패키지 업체까지 각각 독립적인 업체를 거쳤다는 걸 알게 되었다. 2020년에 멕시코에서 먼저 『롱북』이 스페인어판으로 출간되었다. ISBN도 받지 않은 채 독립출간으로 만들었던 『롱북』은 여전히 국내에서는 정식 출간되지 못하고 있다.



『롱롱폴드아웃북』 작품 이미지

김윤정 작가의 대표작인 『엄마의 선물』 또한 본문의 종이 창문에 투명 필름이 붙어있는 형식이다. 종이 인쇄물과 필름 인쇄물이 합쳐져 수작업으로 목형의 창문 종이를 떼어내며 제작된다. 『엄마의 선물』 1,000부를 만들기 위해 제지 업체에 발주를 넣었고, 인쇄소와 톰슨 업체를 거치고 제본 업체를 거쳤다. 그런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여분의 종이가 1~2백 장씩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1,000부를 넣어서 업체 몇 곳을 거치니 500여 부가 되었다. 결국 제작 원가가 2배 가까이 들어갔다. 1만 원의 책을 3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2만 원의 제작비가 든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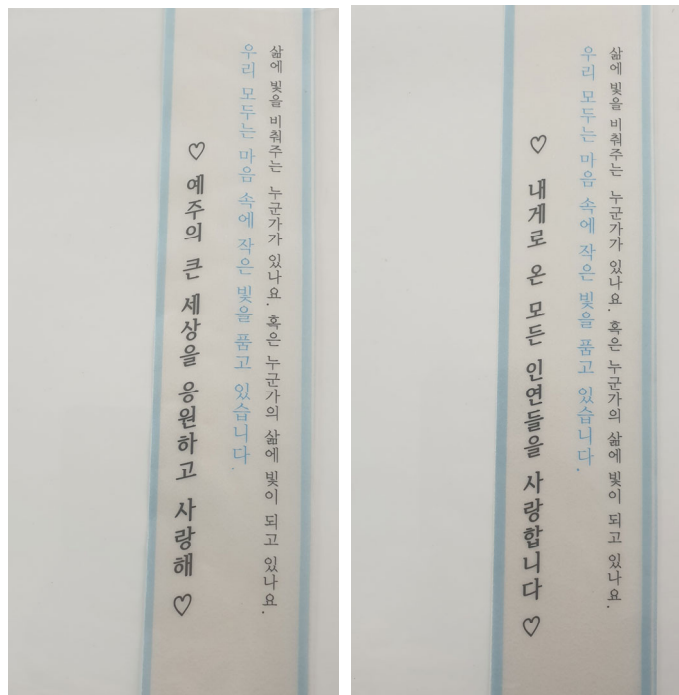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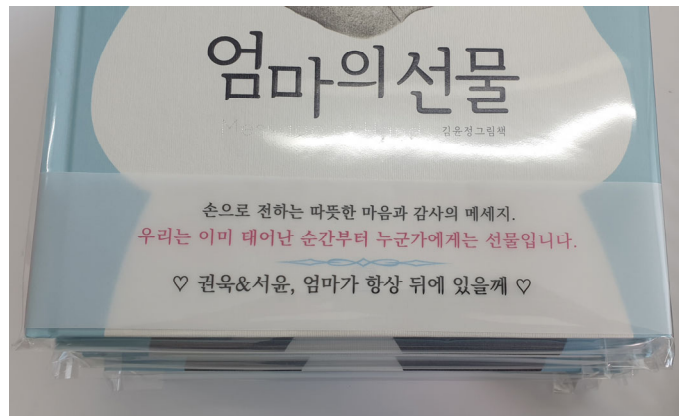
『엄마의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던 독자와 서점의 연락이 쇠도했다. 그 당시 품질 상태여서 책이 중고로 7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엄마의 선물』을 구하기 힘든 독자들은 도서관의 책을 반납하지 않고 돈으로 물어주었다고 한다. 서점에 손해를 보며 2만 원에 보내줄 수는 없었다. 이후 서점의 공급률을 맞추기 위해 책 가격을 올려달라는 서점의 요청을 거부하며 3만 원의 책값을 고수하였고, 스토어를 통해 적게 팔더라도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두 작가의 작품이 전부이기에 적은 종수로 더디고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출판사의 규모나 가능성에 한계가 분명해졌다.

모든 책은 인쇄와 제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설비 공정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제작 형식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게 된다. 기존의 제작 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니 완성도와 제작 일정, 제작비의 부담이 커진다. 자동으로 수월하게 만들어지는 흔한 책이 아니기에 판매와 반품, 위탁이란 제도가 있는 유통 채널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독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작품의 완성도만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책의 특별함을 담은 띠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띠지에 받는 분의 성함을 넣어주었다. “이 책이 ○○○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림책이길 바랍니다.” 책을 받아본

독자의 반응이 뜨거웠다. 스토어에 생생한 리뷰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본인을 위해 구매한 책에서 주변에 선물해주기 좋은 책으로 거듭나게 되며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 책을 직접 판매하면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게 되니 다음 작품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스토어 판매를 통해 다양한 독자의 니즈를 직접 접하게 되는 즐거움도 생겼다.

재구매가 늘어나며 독자들은 이름 석 자에서 만족하지 않고 원하는 문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출산을 앞둔 딸에게 선물한다며 “우리에게 온 특별한 인연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에게 “○○의 큰 세상을 응원하고 사랑해.”라는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문구, “함께했던 이십대를 추억하며 ○○에게”처럼 의미심장한 문구까지 접하며 유행의 책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몸소 체험하게 됐다.



인상 깊었던 띠지 문구

한편 도서관이나 학교에서는 『커다란 손』의 케이스나 띠지 서비스를 번거로워 한다. 같은 그림책이어도 판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층도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작가가 직접 만들고 사인을 해서 판다는 특별함이 선물용으로 자리 잡은 유행의 매력인 것이다. 물리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많이 팔기보다는 한 권이라도 제대로 팔려는 작가의 고민이 만들어낸 방식이다. 서점이나 유통사를 끼고 거래하는 것은 직거래부터 어음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판매로 띠지 서비스도 가능해지고 서점 거래가 없으니 수금부터 관리도 수월해졌다. 출판관계자라면 무모하다고 했을 일이었다.

유행의 유행은 창작, 디자인, 제작, 판매 모든 과정을 작가가 직접하고 있다. 기존 출판사 중에는 작가가 출판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행의 유행은 다른 작가의 작품을 제작하지 않으며 오롯이 김윤정, 최덕규 작가의 작품만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 사인본에, 띠지에는 책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고, 책마다 고유한 인지 번호가 부착되어 있다. 인지를 붙이는 것은 작가의 인세를 정산하는 예전 방식이다. 작가가 곧 출판사인데 인지의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것은 판매자의 입장일 뿐 책을 받아보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마다의 고유번호가 있는 특별함으로 다가온다. 수작업에 가까운 판매 방식과 3만원의 가격을 생각하면, 저렇게 해서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싶다. 책의 고급화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다.

2018년 8월 유행의 유행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정식 출간한 첫 그림책 『빛을 비추면』은, 2018년 하반기에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총판, 서점 판매 없이 출판사 스토어 단독 판매로만 현재까지 15,000부를 훌쩍 넘겼다. 어떻게 알아보고 구매를 하는지 책에 발이 달렸다는 말이 실감났다. 이는 유행의 유행 스토어에 2,000개가 넘는 리뷰가 달리며, 서울국제도서전 유행의 유행 부스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였다. 빠르고 저렴한 자동화 제작 공정과 판매 유통 채널의 다각화로 전국 어디서든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기존 출판시장의 잘 갖춰진 시스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위한 책의 목적에서도 벗어나 있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서길 고집하고 있는 유행의 유행. 박리다매의 대량생산 판매방식이 아닌 한계가 분명한 유행의 유행만의 가능성을 되짚어보게 된다.

『빛을 비추면』은 2018년 3월 순천그림책도서관의 '우리는 그림책 가족' 전시와 그해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첫 선을 보였다. 출간 이전에 샘플 도서를 들고 참가한 도서전에서 전 세계 출판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선뜻 제작을 맡겠다고 나선 출판사는 없었다. 빛을 비추면만 하는 번거로움으로 서점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새로움을 갈망하는 독자의 반응과는 달리 출판사는 새로움보다는 기존의 제작과 형식에 안주할 뿐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필자가 직접 제작을 알아보게 되었다. 책장 뒷면에 빛을 비추면 드러나는 환상적인 그림책 『빛을 비추면』은 그렇게 유행의 유행의 이름을 알리며 출간되었다.

깜깜한 밤하늘에 빛을 비추면 반짝이는 별이 빛나게 되고 도시의 창들에 환하게 불이 켜진다. 지쳐 돌아가는 아빠의 무거운 발걸음에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길을 안내해준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탁에는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감싼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 행위와 의미가 절묘하게 맞물려 우리 삶에 빛이 가지는 의미를 확장해간다. 봄의 따뜻한 빛은 생명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빛은 꿈을 꾸게 만든다. 종이책의 물성을 심분 살린 내용과 형식이 절묘하게 맞물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빛을 비추면』은 따뜻한 의미에 공감하며 마술사의 쇼를 보는 것 같은 신기함과 즐거운 상상에 독자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선물용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윤테디션 부스에서 『커다란 손』 사인회 진행 모습

연이어 들려오는 수상 소식으로 작지만 단단한 윤테디션이 되고 있다. 작년 롯데출판문화대상에서 상금 2천만 원의 본상을 수상하였다. 롯데출판문화대상은 국내 출간물 중에서 장인정신과 사회적 의미가 큰 작품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대상 상금 5천만 원의 규모가 큰 공모전으로, 4회를 맞이했다. 그리고 올해 『커다란 손』이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 논픽션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상금은 없지만 국제적 권위가 큰 상으로 해외 출판사의 저작권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커다란 손』은 늙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삶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담았던 작품이다. 이빨이 빠지고 걸음이 힘들어지며 부축해드려야 하고 옷을 매만져드려야 하는 늙어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글 없이 묵묵히 드러낸 작품이다.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먼저 알아봐주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수상식에 참석을 했다. 『커다란 손』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던 프랑스 남성분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애뜻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해주지 못한 채 그와 눈만 마주쳤다. 언어의 한계 속에서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삶을 관통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윤테디션은 낯선 출판사다. 독자 입장에서 인터넷 서점과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하기 어렵다. 검색이 수월치 않은 고객은 윤테디션 스토어를 찾아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출판계의 명품으로 거듭나고 있는 윤테디션은 평생 10종~20종 이상의 책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산자 우위의 윤테디션은 판매의 채널을 단순화하며 작가의 창작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당장 서점에 넣어서 얻을 수 있는 판매량과 매출을 포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이 흔해진 세상에서 작품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윤테디션만의 교육지책이다. 한편으론 윤테디션의 그림책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후대에 이어질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남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윤테디션은 작가브랜드를 만드는 매니지

먼트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윤에디션은 그렇게 낯선 출판사로 새로움을 즐기고 있다. 인문학적 깊이와 함께 종이의 물성을 살린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보이려하고 있다. 책장 뒷면에 빛을 비추면 모습이 드러나는 그림책 『빛을 비추면』, 필름을 넘기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그림책 『엄마의 선물』, 그리고 손 모양의 케이스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커다란 손』까지 독특한 제작과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독립출판계의 셋별 같은 출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상은 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쟁하듯 시간에 쫓기며 바빠사는 세상이다. 그에 비해 작가는 더디고 느리다. 머뭇거리며 삶을 되새김질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직업적 특성이다. 최신 핸드폰도 2년이면 구형이 되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면』이 출간된 지 햇수로 5년째인데 이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작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낸 숙제를 풀기 위해 삶을 되새김질하며 의미를 찾아 더딘 시간 속을 헤매고 있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큰 힘이 되는 상도 받았다. 새로운 작품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독자의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윤에디션이 우뚝 서 있다. 그림책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짧은 시간에 한 권을 볼 수 있다. 전 연령을 유혹하며 선물용으로 자리 잡은 윤에디션만의 그림책에 대한, 다음 작품에 거는 기대가 한껏 높아가고 있다.



최덕규(그림책 작가, 윤에디션 제작부장)

윤에디션의 제작부장을 맡아 종이책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림책을 선보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림책 작가로 『커다란 손』이 볼로냐 라가치 논픽션 부문 우수상을, 『빛을 비추면』으로 제4회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을, 『여름이네 병아리부화일기』로 제20회 창비 좋은어린이책 기획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mycat0307@naver.com

<https://smartstore.naver.com/yunedition>

5월, '책의 도시 전주'에서 '그림책'을 만나다

윤지현(전주시 책의도시정책과 사서)

2022. 5.

전주에서는 5월 3일부터 한 달간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도서관에서 그림책 원화를 보고,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연도 만나볼 수 있는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바로 그것이다.

전주는 이미 지난 2021년 4월 15일,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공간 혁신', '책이 삶이 되는 독서문화 확산', '지속가능한 책문화 산업생태계 구현'이라는 추진 전략을 통해 책이 시민 삶에 녹아드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 혁신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 12개관 중 6개관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책놀이터인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3개의 도서관이 설계 작업 중에 있다. 또한 지역과 공간, 주제를 특성화한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아중호수도서관', '연화정도서관', '헌책도서관' 등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새로 문을 연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그리고 시민들이 연중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주독서대전’을 비롯해 ‘전주 올해의 책’ 선정,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전주시 독서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확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책 산업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21년 7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책 읽는 시민과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정가의 2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할 때 1권당 5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 20’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시민들의 독서문화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 20’ 포스터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중 ‘그림책’이라는 콘텐츠에 주목하여 올해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개최한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그림책은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림책은 짧은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까이하기 쉽고, 나라나 지역, 문화의 차이까지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림책의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아 최근에는 오히려 그림책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주는 이러한 그림책의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준비하게 되었고, 5월 3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한 달간 행사를 이어간다.

그림책의 다양한 매력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소개해본다.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포스터

먼저,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는 그간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림책 원화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해외 작가로는 강렬한 색감과 거친 붓 선이 특징인 ‘다시마 세이조’ 작가를 초청했다. 『비가 주룩주룩』, 『내가 올챙이야?』를 비롯해 곧 출간 예정인 『염소 시즈카의 숙연한 하루』와 『송이와 꽃봉어 토토』까지 총 6종의 원화 30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1층에 조성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하루 3회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5월 28일과 29일, 2회에 걸쳐 ‘그림책과 다시마 세이조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3월에 재개관한 금암도서관 1층에서는 『내일은 맑겠습니다』로 2021년 BIB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이명애’ 작가의 원화를 만나볼 수 있다. 디지털 작품으로 제작된 『내일은 맑습니다』와 『휴가』의 원화 및 아트프린팅 30점과 함께 스케치 자료, 채색 도구 등을 전시하고,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이명애 작가의 작품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5월 4일에는 ‘우연한 발견, 놀이하듯 확장해 가는 그림책의 세계’라는 주제로 이명애 작가와 키다리출판사 위정은 편집장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주가 주목한 그림책 작가 8명의 작품 전시 및 북콘서트도 한 달 내내 이어진다. ▲ 6월 초에 『싫어요 싫어요』를 출간할 ‘박정섭’ 작가, ▲ 『나무, 춤춘다』로 2018년 볼로냐 라가치상 뉴호라이즌 대상을 수상한 ‘배유정’ 작가, ▲ 『수연』, 『호텔파라다이스』 등의 ‘소윤경’ 작가, ▲ 『너는 누굴까』로 2018년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부문 스페셜 멘션에 선정된 ‘안효림’ 작가, ▲ 『검정토끼』로 2022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상을 수상한 ‘오세나’ 작가, ▲ 『파란파도』로 2015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상을 수상한 ‘유준재’ 작가, ▲ 『양철곰』으로 2010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상을 수상한 ‘이기훈’ 작가, ▲ 『벽』으로 2018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정진호’ 작가가 참여하

며 삼천·송천·인후·평화도서관과 동네책방 4곳에서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북콘서트를 가진다. 해당 장소에서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도 한 달간 이어진다.

아직 출판 경험이 없는 청년 신인 작가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내 그림책 작가를 양성하는 ‘꼭두 일러스트 학교’와 연계하여 신인작가 13명의 원화와 더미북, 드로잉 작품 등을 금암도서관 2층에 전시할 예정이다.

인후도서관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는 전 세계 그림책 도서전도 준비되어 있다. 최근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The Hans Christian Andersen Award)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를 비롯해, 영국의 ‘존 버닝햄’, 미국의 ‘모리스 샌닥’ 작가 등 10명 작가의 그림책 원서와 한글 번역 그림책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세계의 다양한 그림책을 비교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후도서관 내부

가족이 함께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면 ‘그림책 작가 1인 극장’ 프로그램을 찾아가면 된다. 그림책 작가가 직접 그림책 소품을 이용해 공연과 강연을 함께 진행하는 ‘그림책 작가 1인 극장’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5개 도서관에서 매주 토요일 다섯 명의 작가가 함께한다. ▲ ‘김리라’ 작가의 『미술 시간 마술 시간』, ▲ ‘난주’ 작가의 『냥이의 이상한 하루』, ▲ ‘미우’ 작가의 『공포의 새우눈』, ▲ ‘장현정’ 작가의 『멤』, ▲ ‘한기현’ 작가의 『잠자리 편지』를 만나볼 수 있다.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그림책 작가 1인 극장’을 함께 하고 그 여운을 그림책으로 간직하고 싶다

면, 같은 시간에 전주동네책방과 연계한 해당 작가의 북마켓도 함께 열릴 예정이니 꼭 방문해 보기를 바란다.

전주의 도서관은 5월 한 달간 그림책과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전시장으로, 강연장으로, 공연장으로 변모한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은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다. 5월에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와 말과 글을 넘어 꿈과 상상력의 세계로 안내할 '그림책'과의 만남인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과 함께하기를 추천한다.

윤지현(전주시 책의도시정책과 사서)

우리 그림책, 남미를 만나다

- 2022년 보고타국제도서전 참관기

김지은(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2022. 5.

책으로 재회한 열흘

도서전 개막식이 열리는 2022년 4월 19일,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엘도라도 국제공항에 내린 시각은 새벽 5시 무렵이었다. 보고타시는 해발 2,640미터로 에콰도르의 키토와 볼리비아의 라파스 다음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손꼽히는 고원의 수도다. 4월은 우기이며 가랑비가 내린 탓에 활주로 바닥이 젖어 있었다. 하얀 구름 뒤로 병풍처럼 서 있는 짙푸른 몬세라테 산을 보면서 일행 중 누군가 말했다.

“큰 산이 허리를 바짝 세우고 앉아 있는 것 같아.”

버스를 타고 시내에 들어서자 하늘 아래 1번지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디를 둘러봐도 몬세라테 산이 있었지만 골짜기 아래 평지가 워낙 평평하고 넓어서 시야는 활짝 열려 있었다. 간선급행버스(BRT)가 다니는 차도와 평행으로 정비된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승용차가 많아서 교통 체증이 상당하다. 콜롬비아의 국토 면적은 한국의 열두 배이며 전체 인구 규모는 5천만 명 정도인데 그중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타시에 모여 산다. 1만 몇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16세기부터 왕국이 자리 잡았던 유서 깊은 이 도시의 지하철 노선은 아직 건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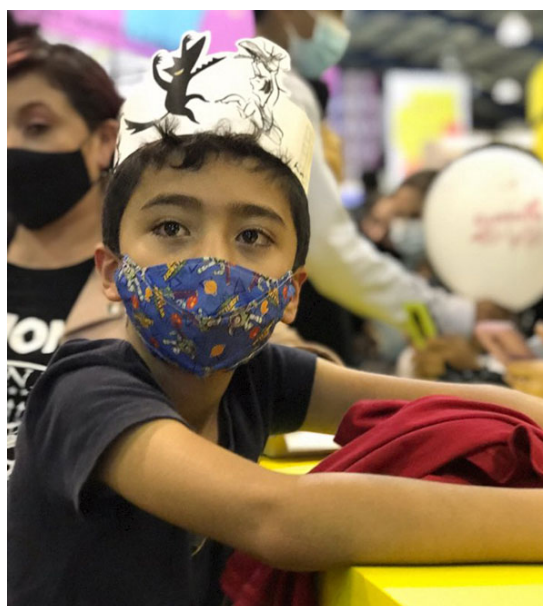
한국과 콜롬비아는 수교를 맺은 지 60년이 됐다. 2022년 보고타국제도서전(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de Bogotá, 약칭 FILBo)은 이를 기념하여 우리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환대에 부응하여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도 콜롬비아를 주빈국으로 맞이하기로 했다. 보고타에서 인사를 나눈 출판인과 작가들이 6월에 한국에 온다. 한 권의 작은 책이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두 나라 독자들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문학은 물론 과학, 예술, 역사, 정치 등 전방위에서 사회 교류의 물꼬를 틔워준다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보고타국제도서전은 1987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중남미에서는 과달라하라도서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기간이 열흘로 도서전 중에서도 긴 편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동반한 관객이 많다. 주

빈국 한국관의 주제는 ‘공존(Togetherness/Convivencia)’이다. 팬데믹의 경험은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절박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했던 인간이 어느새 자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로 진입했고 인간 자신의 생존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양식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 또한 80억 지구는 서로 다른 개인들의 크고 작은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국면에서 차이를 극복하고 다른 존재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일은 우리들의 턱 끝까지 다가온 질문이다.

여기에 이번 도서전에서는 ‘재회’라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었다. 오랜 시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책을 찾아 한자리에 모이면서 도서전 자체가 몽클한 ‘재회’의 공간이 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해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도서전은 올해 대면으로 전면 전환됐다. 개막식에 모인 사람들은 “기나긴 어려움을 뚫고,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딛고, 우리는 기어코 다시 만났습니다.”라는 개막식 선언을 들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주빈국 작가를 대표해 축하 연설을 한 은희경 작가는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하지 않으면 오해와 편견, 차별과 혐오가 일어난다.”며 긴 결별 이후의 회복을 돕는 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전 보고타국제도서전의 평균 관람객 숫자는 60만 명에 달했는데 2022년 도서전은 그 열기를 성공적으로 되찾은 것으로 보였다. 집계에 따르면 전시가 중반에 접어들기도 전에 한국관 관람객 숫자만도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실외에서는 축제가 열렸고 실내 공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범이 완화되어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면 북도크와 워크숍, 체험활동, 사인회 등 작가와 독자가 적극적인 교감을 나누는 일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관람객들은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이 준비한 한복을 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전통놀이 구역에서 사방치기와 딱지치기를 즐겼다. 그림책관에서 배부한 왕관을 쓰고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어린이 독자



그림책관에서 배부한 왕관을 쓰고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어린이 독자

그림책이라는 보편성, 한국이라는 특수성

한국관은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시장 중심의 독립 건물에 마련되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1년 주빈국 참가가 결정된 직후부터 그림책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림책 전문가인 김서정, 김지은, 조성순, 최현경, 최혜진의 자문으로 전시 주제 및 구체적 세부 사항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실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한국과 콜롬비아 양쪽에서 움직였으나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 지침으로 인해 출국 직전까지도 모두 초긴장 상태였다.

그림책관에 초대되어 독자를 만날 작가로는 중남미에 이미 두터운 팬덤을 지닌 이수지 작가를 비롯해 뉴욕타임스 베스트에 오른 김효은, 볼로냐도서전 라가치상을 수상했던 박연철, 정진호 작가의 참석이 확정되었다. 이수지 작가는 콜롬비아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후보이기도 했던 그림책 작가 클라우디아 루에다와, 김효은 작가는 작가 디파초, 박연철 작가는 작가 파울라 보시오, 정진호 작가는 작가 아멜리아 사티자발과 각각 북토크를 열기로 하였다. 또한 평론가 김서정과 아동문학 평론가 안드레스 몬타네스, 평론가 김지은과 자베리아나 대학의 훌리아나 카파소는 각 나라의 그림책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상대 작가의 활동에 대한 메일을 전달받거나 화상회의로 인사를 나누면서 교류를 시작했다.



북토크를 마치고 관객과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김효은 작가와 콜롬비아의 디파초 작가

그림책관은 한국관의 전체 주제 '공존'과 결을 맞추어 우리 그림책에 나타난 '다양한 목소리들의 어울림'을 주제로 정했다. 과거와 현대, 개인과 사회, 자연과 인간, 환상과 현실에 담긴 목소리를 담은 탁월한 한국 그림책 100선을 선정하고 전시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두 작가,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와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특별 코너를 두었다. 김효은, 박연철, 정진호 작가의 작품도 별도로 전시되었다.

또한 한글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책, 스페인어로 번역 출간된 그림책들을 모아서 선보였고 영상 전시와 작가 진행 워크숍을 위한 공간도 운영했는데 날마다 만석이었다. 주빈국관 무대에서 열리는 세미나 외에도 보고타 시내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고 독자를 만났다. 뿐만 아니라 보고타 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선정한 비르힐리오 바르코 공공도서관과 그림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문화 거점인 까사 틴타를 방문해 여러 예술가와 독자를 만났다.

그림책관에 주어진 전시 면적으로나 전시 기간으로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도서전 참가 사상 이번이 최대이자 최장이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층위에서 우리 그림책의 면모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물류 상황이 예측불허인 가운데 전문가 관객들에게 증정할 도록과 일반인 관객을 위한 종이 왕관, 워크숍 재료, 기념품을 공수해 현장에 비치했다. ‘목소리’라는 키워드에 맞춰 말풍선 모양으로 설계한 원형의 전시장은 그림책 한 권 한 권이 돋보일 수 있도록 레몬노랑을 주조색으로 삼았다. 레몬노랑은 전시 기간 내내 화사하게 시선을 사로잡았다.

콜롬비아의 독자들이 보여준 한국 그림책에 대한 관심은 열렬했다. 연령을 가리지 않고 그림책을 진지하게 대하는 분위기는 인상적이었으며 북토크마다 작가의 작업에 경의를 갖추면서 정중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아낌없이 나타냈으며 활달하면서도 집중력 있는 참여 태도로 워크숍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간단한 한글을 소리 내어 읽을 줄 아는 독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연령이 낮은 독자들일수록 한글을 배워서 직접 그림책을 읽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가까이에서 설치된 세종학당 부스도 연일 성황이었던 것을 볼 때 장차 한글에 익숙한 독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 작가들의 그림책 앞에서는 호감의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 아직 번역 출간된 작품이 드물어서 스페인어로는 제목과 초록 정도만 제공되었지만 독자들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끝까지 읽고 자신들끼리 상세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미지로 소통하는 그림책의 자유로움, 공통의 감각을 환기시키는 그림책의 보편성이 이곳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었다. 더불어 한국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이 보여주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아름다움,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현대의 감정과 호기심이 작용하면서 우리 그림책이 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고 느꼈다.

대양을 건너 작가와 독자를 연결시키는 도서전의 힘

이번 도서전에서 특별하게 여겨진 부분이 있다면 콜롬비아 작가 및 독자들과 나눈 상호작용의 진정성과 연결의 경험이었다. 현지 작가와 우리 작가가 함께 독자를 만나는 북토크 프로그램 구성은 성공적이었다. 앞으로 다른 도서전의 참가 계획을 세울 때도 반영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 덕분인지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음 행사, 다른 일정들로 의미 있는 파장이 이어졌다. 박연철 작가의 북토크를 보고 오토마타(automata) 작업에 매력을 느낀 디파초 작가는 이튿날 김효은 작가와 나눈 북토크에서 그에 대한 경탄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김서정 평론가의 발표에서 한국 아동문학의 역사를 알게 된 평론가 안드레스 몬타네스는 콜롬비아 아동문학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다. 그림책과 아동문학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최고 전문가에 해당하는 두 사람의 교류가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유대로 이어

질지 기대가 된다.

정진호 작가와 김효은 작가는 까사 틴타에서 열린 그림책 읽기 모임에서 그림책은 어떻게 예술적 경험이 되는지 현지의 독자들과 영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여름 코디네이터는 일정 내내 작가들과 동행하고 세미나를 참관하면서 여기서 얻은 우리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출판 관계자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에 실질적인 저작권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림책관에서 독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 중인 박연철 작가

30시간에 가까운 비행 일정과 방역의 까다로움, 휴식이 거의 없었던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작가들은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일정을 수행했다. 박연철 작가의 워크숍은 극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자들의 몰입도가 대단했다. 정진호 작가는 독자들과 그림책에 대한 조망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논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김효은 작가는 그림책의 예술성에 대해서 독자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 인상적인 발표를 했고 객석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수지 작가는 전시장 안과 밖에서 진정한 슈퍼스타였다. 참여 작가와 평론가들이 콜롬비아 공영방송 RTVC, 신문 엘 에스펙타도르, 아메리카 노티시아스 등 현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부지런히 응하면서 한국 그림책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도 이번 도서전의 의미 있는 성과였다.

다만 작가들의 북토크에 지원되는 통역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통역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문학적 이해와 소통 능력, 예술적 언어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후에 다른 도서전에 참가할

때도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통역 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지에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도 통역 인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객석과 상호작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는 더욱 중요한 요청사항이 된다.

이번 보고타국제도서전은 여러 측면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남겼다. 비르힐리오 바르코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이수지 작가와 클라우디아 루에다 작가의 북토크에서 관객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귀감이 되는 것이었다. 작품과 작가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그들의 질문은 책 읽는 문화, 그림책을 사랑하는 방법을 두루 돌아보게 만들었다. 웹툰 『며느라기』의 수신지 작가가 북토크에서 여성 인물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모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였던 객석의 숙연하면서도 섬세한 반응도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독자들의 공감에 국경의 장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비르힐리오 바르코 공공도서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독자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이수지 작가

국제도서전은 여러 가지 결실을 남긴다.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꼈던 독자들은 이번 도서전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한발 더 가까워졌을 것이다. 만나기만 하면 우리말로 말을 걸어오고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으며 친근감을 표했던 보고타의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은 도서전 폐막 후에도 ‘책’의 형태로 남아 있는 한국과의 우정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출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가들에게 남는 경험의 힘이다. 앞으로 더 많은 작가가 세계의 독자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전시에서 노출되는 작품은 작가를 대신하여 독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셈이다. 그러나 작품만 보내는 것으로는 아쉬움이 크다. 작가들에게 도서전 참가는 작품 창작 기간의 일부를 반납하면서 빈틈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커다란 에너지와 각오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더 많은 작가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독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가능성을 선보이게 된다면 한국 그림책의 활동 반경과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국제도서전의 현장 경험이 발생시키는 역동적 에너지가 있다. 좋은 팀워크, 안정적인 제도의 지원이 동반된다면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우리 출판문화산업의 역량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번 보고타국제도서전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뜨거운 환대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책이라는 물리적 사물을 통과하면서 상호 신뢰와 우정으로 쌓이는 일은 복잡하고도 긴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림책들이 보고타의 하늘 아래서 순조롭게 독자를 만나고 올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여기 언급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들에 감사드린다. 성과와 착오를 정확히 분석하고 방식을 가다듬어 간다면 우리 그림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싶다. 항상 그렇지만 지금부터 더 잘 해야 한다.



김지은(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이자 그림책 연구자이다. 『어린이, 세 번째 사람』, 『거짓말하는 어른』,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공저)』,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공저)』을 썼다.

aldo211@hanmail.net

서로의 안녕을 확인한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

오승현(출판사 글로연 대표)

202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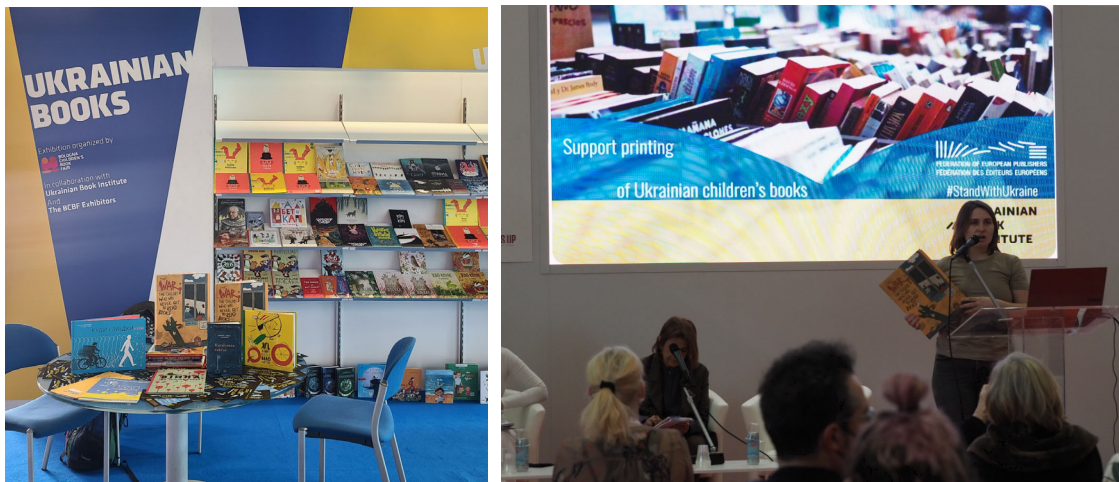
2022년 3월, 기대와 우려 속에서 제59회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 BCBF)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여기서 '성공'이라 함은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변경이나 취소 없이 진행되었고, 도서전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쳤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2020년 이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례 없는 일들을 겪었고 또 그것들에 대처하며 살아왔던가! BCBF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4년에 신설되어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볼로냐에서 열렸던 행사가 지난 두 해 동안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야만 했다. 이번 2022년 BCBF도 엔데믹 상황에서 열린 것은 아니었기에 참가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불안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세계 각국에서 인파가 몰려오니 염려는 더 커져만 갔다. 그런 중에 열린 3년 만의 도서전에서 친한 출판사 관계자와 낯익은 외국 독자들을 만나 주고받은 첫인사는 "네가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야."였다. 책으로 연결되어 있던 우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공간, 2022 BCBF의 시작이었다.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 전경 ©BCBF 홈페이지

90개국에서 1,070곳의 출판사가 참가한 이번 도서전은 2019년에 비해 75% 정도로 그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21,432명의 방문자 중 40% 이상이 해외에서 온 출판인이었다. 많은 출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을 안고서라도 꼭 BCBF에 왔어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얻은 답은 지난 3년간 열심히 만든 책을 세계 속에 내보이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도서전이 열리는 첫날에 전시장을 들어가며 맞는 그 기분 좋은 두근거림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설렘은 국내 창작 그림책을 주로 출간하는 필자에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심장 밖의 박동이기도 했다. 매년 3월이 되면 대부분의 그림책과 어린이책 관련 출판인들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설렘을 안고 이번 BCBF에 참가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의 출판사 부스는 텅 빈 채로 자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주최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책들을 특별히 소개하며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슴 아픈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배려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빈자리는 도서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서 쉼하다.



우크라이나 부스 ©김성미, ©BCBF 홈페이지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BCBF를 보면 주최 측은 비대면 개최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관련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 듯했다. 그런 경험 덕분일까? 이번 도서전은 2019년에 비해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채로워졌다. 어찌 보면 2022 BCBF는 온라인 도서전을 통해서 다져진 기획력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최대치로 접목된 행사를 여는 원년으로 남을 것으로 보였다. 주빈국인 샤르자(Sharjah)의 전시와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수상작 전시를 포함해 자그마치 18개의 전시 프로그램과 250개가 넘는 라이브 이벤트가 4일 동안 계속되었으니 말이다.

많은 라이브 이벤트가 BCBF의 SNS를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는데, 이런 라이브 중계를 가장 환호하며 시청한 독자는 아마 우리 한국인일 것이다. 이수지 작가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The 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HCAA)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하는 행사가 도서전 중앙에 있는 Illustrators Café에서 진행되었고, 그대로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도서전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수지 작가의 수상 소식을 영국의 출판사와 미팅을 마치고 부스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알았다. 부스를 열고 도서전에 참가하면 해외 출판사 미팅이나 해외 독자들에게 우리 책을 소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하지만 이수지 작가의 수상 소식은 홀과 홀 사이의 소박한 야외 정원에 큼직한 패널로 자리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ALMA) 수상 작가 전시를 향해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 그곳에는 백희나 작가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자리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무대에서 이수지 작가와 백희나 작가, 두 사람이 이루어낸 성과가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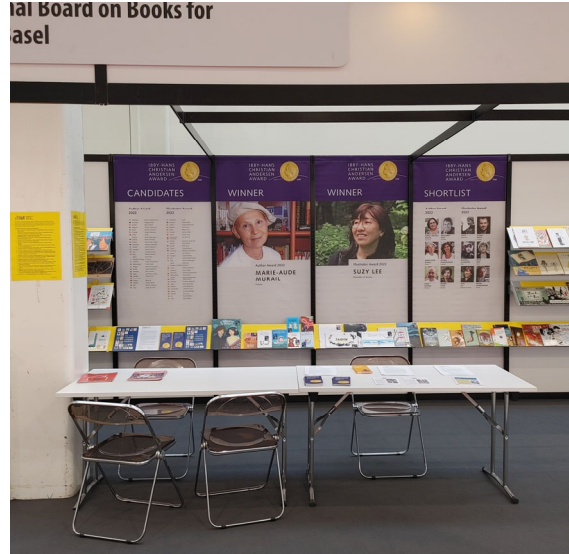
날의 환한 햇살처럼 눈부셨다.



202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발표 현장 ©BCBF 홈페이지,
ALMA 수상자 야외 패널 전시장 ©인스타그램(@gloyeon) 라이브방송 캡처

BCBF 기간에는 어린이문학계의 세계적인 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이 격년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이 매년 수상자를 발표한다. 짝수 해가 되면 HCAA 수상자 발표와 어린이문학계의 최고 상금을 자랑하는 ALMA 수상자 발표가 더해져 도서전은 더욱더 들썩이는 분위기가 된다. 올해가 바로 그런 해였다. 더군다나 HCAA 일러스트레이터 분야 수상자가 한국의 이수지 작가였기에 현지의 한국관은 축제 분위기를 즐겼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관에서는 그 축제의 여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된 한국관은 평소 3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하곤 했는데, 올해는 14개 출판사만이 참가했다. 그중에는 책만 전시한 곳도 있고, 일부는 출판과 관계없는 현지 교민에게 운영을 위탁한 곳도 있어 출판사가 직접 참가한 곳은 많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부담을 안고 볼로냐까지 출장을 오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수지 작가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들도 그런 상황에 속했기에 에이전트나 독자들이 이수지 작가의 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한국관이 아니라 HCAA를 제정하고 수상 작가를 선정하는 IBBY 스탠드였다. IBBY 스탠드가 그나마 한국관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외국의 많은 독자가 그곳을 찾아와 이수지 작가의 책을 보고 좋아했으며, 구매할 수 없는 애달픔에 빠졌다고 IBBY 관계자로부터 그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



한국관 전경 ©김성미, IBBY 스탠드 사진 ©오승현

하지만 BCBF의 꽃이라면 아무래도 '라가치상'이 아니겠는가! HCAA를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비룡소, 2021)』가 라가치상 스페셜 멘션을 수상하기도 하며 그야말로 이번 볼로냐를 주름잡았다. 최덕규 작가의 『커다란 손(윤에디션, 2020)』도 논픽션 부문에서 라가치상 스페셜 멘션을 수상했다. 라가치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이 생긴 이래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64년과 1965년에는 자국의 책으로 수상 자격을 제한했지만 1966년부터는 국가 제한을 없애고 참가사 전원에 자격을 부여했고, 올해부터는 도서전 참가사가 아니더라도 출판 자격을 주고 있다. 상의 성격도 조금씩 변화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코믹스 장르를 추가하여 대상 범위를 확장했다. 올해는 라가치상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문지기엔 안타까운 100권의 책을 'THE BRAW AMAZING BOOKSHELF'라는 타이틀로 선정, 발표하고 라가치상 수상작들 틈에서 전시를 했다. 라가치상을 받는 극소수의 책들에 이어 보다 더 많은 책에 눈길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도서전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다 보니, 라가치상 수상작들에 대한 전시도 예년과 달랐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 2020년과 2021년 라가치상 수상작들과 올해의 수상작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시한 것이다. 보통 당해 연도의 수상작들을 유리관 한 개에 소형적으로 담아서 보여주곤 했는데, 이번엔 그 유리관이 세 개였으니 그 또한 특별하게 여겨졌다. 여러 책에 시선을 주고자 한 기획으로 돋보인 전시는 'FLUO LIT UP BOOKS'였다. 형광색을 사용한 책들을 행잉 스타일로 전시했는데 시선을 사로잡는 색으로 인해 이 코너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 그림책에서 형광색은 표현 컬러를 풍부하게 만듦과 동시에 주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코너 역시 그랬다. 이 전시에서도 한국의 그림책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수년에 걸친 라가치상 응모작들을 보관했다가 주제에 맞게 골라 전시하는 듯했다. 다양한 책에 형광색이 구현된 정도와 튀는 색의 어울림을 살펴볼 수 있어, 책을 만드는 이에게는 특히 유용한 코너였다.



라가치상 시상식 장면 ©BCBF 홈페이지, 행잉 스타일의 'THE BRAW AMAZING BOOKSHELF' 전시 ©오승현



라가치상 수상작 전시, 'FLUO LIT UP BOOKS' 전시 장면 ©오승현

이 외에도 일러스트레이터와 일러스트레이션에 관련된 이벤트와 전시가 현격히 늘어났다. 'Illustrators Survival Corner'는 현직 편집자나 작가, 교수까지 프로그램에 가세하여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Digital Illustrators Wall'이 생겨 공간의 제약 없이 일러스트레이션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수상한 적이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관련 상이 있는데 그건 2012년에 시작된 'Ars In Fabula - Grant Award'와 2013년에 시작된 'International Award for Illustration'이다. 두 상 모두 젊은 작가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것으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작가 중에서 수상자가 선정된다. 'Ars In Fabula - Grant Award'는 30세 미만의 뛰어난 한 명의 작가에게 Ars in Fabula 대학원에서 출판과 일러스트레이션 과정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International Award for Illustration'은 스페인 출판사인 SM에서 지원하는 상이다. 35세 미만의 뛰어난 작가 한 사람을 골라 상금으로 15,000유로를 수여할 뿐 아니라 SM에서

책을 출간할 기회를 주고, 다음 해 BCBF에서 개인전과 함께 그 책을 선보이는 막강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 상은 이번 도서전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다.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전시장 ©오승현



'International Award for Illustration' 10주년 포스터와 수상 작가 10인의 대표작 ©BCBF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라가치상 수상 현황을 보면 2004년에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조호상 글/윤미숙 그림, 웅진)』가 픽션에, 『지하철은 달려온다(신동준 글/그림, 초방)』가 논픽션에서 각각 라가치상 멘션을 수상한 이후로 2006년에 고경숙 작가의 『마법에 걸린 병(고경숙 글/그림, 재미마주)』이 라가치상 멘션을 받은 다음, 2009년부터는 2016년을 제외한 모든 해마다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렇기에 BCBF에 참가하는 출판사나 독자들에게 한국관은 더더욱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한국관이 위치한 Hall 29는 박람회장의 중심인 Hall 25나 26에 비해 가장자리임에도 해외 편집자와 독자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그들로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국 그림책을 현장에서 줄지어 읽고 저작권 수입에 대해 상담하며, 또 책을 구매하는 모습이 연이어 펼쳐졌다. 도서전을 찾은 이탈리아인들의 표정은 밝았고 책을 펼쳐보는 그들의 모습엔 호기심과 미소가 가득했다. 다행이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으로 전해졌던 처참했던 울부짖음의 비극을 견뎌낸 그들이 다시 웃고 있었다. 책이 그렇게 해주고 있었다. 그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 분투했을 그들이 한국관을 찾아와 미소를 머금은 채 그림책과 함께하는 모습을 기억 위에 더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뚫고' 여기에 온 보람이 스며왔다.



한국관 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오승현

도서전의 주 이벤트가 진행되는 곳은 전시장 중앙에 있는 Illustrators Café였다. 여러 이벤트 중 『사피엔스』로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신작 발표회가 눈에 띄었다. 4권으로 기획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역사책 『Unstoppable Us』 중 1권이 올가을에 25개 언어로 출간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유발 하라리가 직접 와서 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역사관과 어린이에게 역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또 새 책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출간도 되기 전에 25개 언어로 계약을 하고 시작하다니! 일러스트레이터 리카르 자플라나 루이스(Ricard Zaplana Ruiz)가 그림을 담당하고 원헌의 두 출판사 편집팀이 합류해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방대한 규모의 출판 프로젝트도, 또 국제도서전에서 두 시즌이나 앞서 출간을 발표하며 세계 출판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홍보 방식도 정말 멋지고 부러웠다. 봉준호 감독이 국제영화제에서 새로운 영화 촬영을 시작했다는 발표를 한다면 이런 분위기일까? 문화 한류가 각 장르에서 활발하게 그 꽃을 피우고 있는 지금, ‘출판은 어느 지점인가?’에 대한 생각이 이어졌다. 이수지 작가와 백희나 작가가 세계적인 상을 받으며 어린이문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출판산업과 보다 더 밀착되어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을 방법은 없을까?(유발 하라리 북토크 영상: <https://youtu.be/wlkvVzbMZLk>)



유발 노아 하라리의 신작 발표회 ©BCBF 홈페이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러 국제도서전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은 주로 주빈국 행사를 통해서였다. BCBF에도 한 나라의 문화와 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주빈국 행사가 있다. 올해는 아랍에미리트연방 7개국 중 세 번째로 큰 토후국인 샤르자가 그 대상이었다. 아랍 세계의 저명한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예술가, 스토리텔러 25명이 도서전 동안 21개의 창작 워크숍과 토론회, 스토리텔링, 연극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도서전에서는 샤르자를 위한 전시장뿐만 아니라, Hall 29 내 한국관 바로 옆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특별히 마련되었기에 더 풍부하게 그들의 색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퍼블리싱 퍼스펙티브스(Publishing Perspectives)'의 편집장인 포터 앤더슨(Porter Anderson)은 주빈국 행사가 너무 많아 각 행사의 색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가 주빈국이 되어 열심히 한국의 문화와 작가들을 알리고 난 후 관객이 이렇게 느낀다면 참으로 힘이 빠질 것 같다. 그러나 도서전에 온 이들이 궁금해 하는 건 무엇보다 책이 아닐까? 그 짧은 시간에 색다른 문화를 다채롭게 보여줘도 이방인들의 진정한 관심을 끌어내기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빈국인 샤르자의 특별 공연 등 행사 사진 ©BCBF 홈페이지

반면, 유발 하라리는 어떨까? 책과 작가만으로 자기의 무대를 만들고 뉴스를 생산해내며 시선을 끌어 모은다. 그리고 그 시선을 오롯이 다시 책에 집중하게 만든다. 물론 작가의 힘이 먼저다. 세계적인 상을 받은 이수지, 백희나 작가가 가진 힘이 적지 않은데, 어쩌면 우리만 그걸 모르고 또 안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 한국의 출판사가 도서전의 주최 측에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함께 기획해서 세계 출판계의 시선을 모으는 그런 이벤트를 국제무대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까? 그런 기대를 안고 2023 BCBF를 기다려 보련다.



오승현(출판사 글로연 대표)

출판사 글로연에서 그림책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영국 Anglia Ruskin University 대학원에서 출판학을 공부하고 석사학위논문으로 「Ursula Nordstrom을 통한 그림책 편집자의 역할과 역량」을 썼다.

shoh25@hanmail.net

인스타그램: @gloyeon

[글로벌 출판 동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대하는 독일 출판계의 자세

박소진(그래픽 디자이너, KPIPA 독일 수출 코디네이터)

2022. 5.

최근 유럽 국경에서 발발한 전쟁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에 대해 다시금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독일 출판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독일 출판 서적상 협회(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는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선포한 날, 독일 출판협회 평화상 위원회(Friedenspreis des deutschen Buchhandels)와 함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두 기관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분노하며, 러시아 국민과 그들의 대통령에게 유럽의 평화와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크라이나는 평화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독일 출판 서적상 협회는 이웃 국가 폴란드의 독서 진흥 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도서를 구매하여 이를 폴란드로 이송할 자금을 위한 기부 활동을 지원하였다. 기부금은 도서 구매 및 배송에 쓰이고,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독일 출판 서적상 협회의 대표이사 페터 크라우스 폰 클레프(Peter Kraus vom Cleff)는 우크라이나의 출판 업계 동료들이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도서전 참가 준비는 제쳐둔 채, 자신과 직장 동료, 가족을 보호하고, 중요한 예술 작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국가,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소식을 공유하였다. 폰 클레프는 이들을 지지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일 서점들이 서점 내부와 쇼윈도에 우크라이나 관련 도서들을 소개하고, 출판사들은 우크라이나 작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기 등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미지를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공유하여 분명한 신호를 전해야 한다고도 전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 출판인 연맹(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또한 '우크라이나는 창의적인 유럽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맹은) 이들과 연합하고, 지지하며, 유럽에서 열리는 도서전에서는 러시아 국가관을 운영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 출판인 연맹의 차기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출판사들과 서적상들이 주빈으로 초청되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동 사안들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독일 출판 서적상 협회가 제작한
우크라이나 지지용 포스터

(출처: <https://www.boersenverein.de/politik-positionen/frieden-fuer-die-ukraine/>)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하거나 서점 쇼윈도에 사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지용 이미지

(출처: 독일 출판 서적상 협회(Börsenverein)
<https://www.boersenblatt.net/news/literaturszene/wir-bewundern-euren-mut-230847>)

올해에도 취소된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대신하여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행사들 또한 우크라이나 지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며, ‘연대회의 문학 행사’를 개최했다. 3월 17일에 라이프치히 독일 문학 협회(Deutsches Literaturinstitut Leipzig)에서 열린 ‘종이로 만든 다리(Eine Brücke aus Papier) 낭독회’에는 독일과 우크라이나 작가들이 함께 참가하였으며,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었다. 이틀 후인 19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유럽의 문화 분야 종사자들과 지식인들이 ‘유럽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가?(Neuordnung Europas?)’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 상황과 이 전쟁이 유럽의 문화 및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 행사는 라이브로 스트리밍되었다. 한편, ‘뮌헨 문학의 집(Literaturhaus München)’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의 한 명인 옥사나 사부슈코(Oksana Sabuschko)의 데뷔 소설 『우크라이나식 성교에 대한 현장 연구(Feldstudien über ukrainischen Sex)』와 함께, 정치와 모국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 『잊혀진 비밀의 박물관(Museum der vergessenen Geheimnisse)』, 『고뇌의 행성(Planet Wermut)』, 『공포에 대한 긴 이별(Der lange Abschied von der Angst)』을 소개한다. 현장 방문과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었지만 기부도 가능했다. 기부금은 뮌헨 시가 자매 도시인 키이우와 우크라이나인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스투트가르트에서도 전 러시아 특파원이자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역사가 칼 솔로겔(Karl Schlögel)이 독일어권 국가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작가 및 관련자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서로의 글을 나누었다. 이웃 나라 스위스의 ‘바젤 문학의 집(Literaturhaus Basel)’에서도 우크라이나 작가 두 명과 동유럽 전문가가 대화를 나누며, 대화 후에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인 세르게이 로스니차(Sergei Loznitsa)의 영화 <마이단(Maidan)>이 상영되었다. 이 영화를 통해 2013년 키이우의 마이단 광장에서 벌어졌던 시민 혁명의 모습을 공유했다. 본 행사의 입장권을 통한 모든 수익은 우크라이나 원조에 사

용되었다.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는 지속된다. 베를린 소재의 트라반텐 출판사(Trabantenverlag)는 2월 27일에 '전쟁에반대하는시'라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누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쟁에반대하는시(#AntiKriegsLyrik) 해시태그와 함께 시 형식으로 표현하여 공유할 수 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파비안 레오나드(Fabien Leonhard)는 모인 시 중 몇 편을 선별하여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그는 작년에 같은 형식을 통해 락다운을 주제로 1,400여 편의 시를 모았으며, 일부를 출간한 바 있다. 시를 쓴 인물들 중에는 유명한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시태그 #전쟁에반대하는시 프로필 이미지 스크린샷

(출처: <https://www.boersenblatt.net/news/instagramprojekt-antikriegslyrik-229459>)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흐름만큼이나 러시아를 제재하는 세계적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네슬레, 테슬라, 삼성, 도이체 텔레콤 등 자동차, 소매, 식품, 오락, 기술, 재정, 테크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러시아에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 3월 10일 기준)

이에 더하여, 네 명의 유명 우크라이나 작가들이 전 세계의 문학 관련 협회에 '러시아 도서에 대한 세계적인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 출판 업계 종사자들은 본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출판업 관련자들 또한 같은 상황이어야 공정하다는 의견이었다. 우크라이나 문학 협회와 펜(PEN)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북 아세날(Book Arsenal) 등도 전 세계에 러시아 도서와 출판사를 공동 배척해달라며 목소리를 내었다.

독일에서는 러시아인에 대한 적대감이 일부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독일 출판계는 문학과 예술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독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익 대표 단체(IG Meinungsfreiheit)'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 작가들이 요구한 '러시아 도서에 대한 세계적인 보이콧'에는 응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가능성을 통하여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독일 출판계가 우크라이나 도서를 후원하는 데에 모든 힘을 다하겠지만

러시아 도서에 대한 완전한 보이콧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놀랍다(erschreckend)’고 표현하였다. ‘표현의 자유 이익 대표 단체’의 대변인인 마깃 케텔레(Margit Ketterle)와 미하엘 렘링(Michael Lemling)은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의 자유를 가져야 하며, 작가의 국적이거나 출판사의 소재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독일 서점에서 소개되는 러시아 도서는 푸틴의 프로파간다나 전쟁 옹호와는 관련이 없으며, 문학과 예술의 자유는 전쟁 시기에도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보이콧을 호소한 우크라이나의 문학 협회와 작가들은 ‘러시아의 이야기’는 푸틴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러시아 도서에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의 일부이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전시를 취소한 프랑스의 마티스 미술관의 결정에 대하여 중국의 환구시보는 ‘예술 교류는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마티스 미술관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하기도 하였다. 독일 사회는 각 개인의 의견을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전쟁 옹호자이건 전쟁 비판자이건 그야말로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성향이 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 이익 대표 단체’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러시아에서도 전쟁에 대하여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러시아 아동 도서 작가들과 삽화가들도 푸틴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전쟁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대응하는 러시아 내부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의 목소리는 마음을 울릴 정도로 용감하며 감동적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어권의 작가들과 삽화가들 또한 그들의 공개서한에 같은 뜻을 표하였고, 12개의 독일 작가 협회와 232명의 독일 작가 및 삽화가가 자신의 이름을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에 반대하는 선을 긋는다(Russian Scribes Against the War)’ 공개서한에도 약 1,600명의 러시아 출판계 종사자가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서명했다. 이들의 성명은 ‘우리, 즉 러시아 출판사들, 서적상들, 편집자들, 번역가들, 비평가들, 삽화가들, 디자이너들, 식자공들, 교정자들, 인쇄자들, 도서관 사서들은 러시아의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에 반대한다. ... 전쟁은 범죄이며, 인간의 삶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전쟁은 멈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뉴스 통신사 로이터가 덧붙이기로는 ‘러시아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시위나 항의는 팬데믹 관련 조치라는 명목으로 불법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침략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구금되었다’고 전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연일 뉴스에 우크라이나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자 독일 독자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출판 분야 전문지 ‘뵐러블랏(Börsenblatt)’은 우크라이나 소설 10편을 추천하였다. 그중 두 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도 출간된 바 있는 안드레이 쿠르코프(Andrej Kurkow)의 『회색 벌(Graue Bienen)』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양봉을 하며 모든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한 양봉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의 벌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뿐이다. 그리고 샤사 마리아 잘츠만(Sasha Maria Salzmann)의 『인간의 모든 것은 훌륭해야 한다(Im Menschen muss alles herrlich sein)』는 변환의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지 보여준다. 이 소설에는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르바초프의 체제

개혁 정책, 독일의 현재 모습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문학과 실용서를 전문으로 다루는 뒤셀도르프 소재의 서점 비바부체(BiBaBuZe)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의 배경을 알려주는 실용서 추천 목록을 전하였다. 목록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전선에 보내진 여성들의 실화를 담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Der Krieg hat kein weibliches Gesicht)』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정부에 대항한 ‘에우로마이단(Євромайдан)’ 시위부터 친러시아 분리파나 내부 정세에 밝은 기자들이 쓴 도서들이 포함되었다.

독일 출판계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이 오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출판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며 대응하고 있을지에 관심이 간다. 이 슬픈 계기를 통해 아직 한국에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작가들의 책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글로벌 출판 동향〉 출처

https://www.kpipa.or.kr/export/businessView.do?board_id=140&article_id=130342&pageInfo.page=&type_id=&search_cond=&search_text=&list_no=229

[글로벌마켓 리포트]에서는 미국·유럽·아시아·중남미 등 1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KPIPA 수출 코디네이터’가 현지 출판 시장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리포트는 ‘출판수출지원-글로벌수출동향’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수출동향 바로가기](#)

출판
N